京城府立圖書館 鍾路分館

朝鮮日報 朝刊

# 英中提携進展하면 實力으로斷乎阻止

## 幣制改革協力은斷然拒絶!

## 日本態度俄然强化

【東京電話電通】銀의國有에依한 中國의幣制統一은目下中國滯在中인英國政府最高經濟顧問 레이드로스氏와 宋子文氏 孔祥熙氏等 歐米派閣의 合作에依한 것인데 英國政府는 一旦共同援助의 形式으로 整頓하기爲하야 數日前 레이드로스氏로부터 有吉駐中大使에게도 그內容을 內示하야 日本의 協力을 要請한 事實이잇다 따라서 外務省에서는 大藏省、正金銀行等關係方面과 그對策에 對하야 協議中이던바 中國側은 日本의回答을 기다리지안코 突然 實施를發表하는 不信의 態度를 示하게되엇스므로 日本外務當局은 자못 硬化하엿는데 如何튼 近日中에 레이드로스氏에게 回答을發하야 參加協力을 拒絶할 方針이다 但日本政府로서는 不協力方針을 民間方面에는 구지强請하지안코 商業的利害關係에依한 判斷에 맛길 方針이다 또 英國政府의 借款크레딧트設定에 對해서도 政府로서는 積極的으로 反對치안코 그推移를 靜觀할터인데 經濟的關係로부터 一步進하야 政治的提携를 策함과 如한 境遇에는 東洋平和維持의 立場에서 斷乎 이것을 排擊하고 實力行使에 依해서라도 이實現措處의 決意를 굿게하고잇다

## 中國의銀國有令

### 政治的意味가보다重大

一

國民政府는 銀國有令을 三日에 發布하야 四日부터 實施햇다 일은 簡單한듯하나 이것이 미치는 世界的 影響은 意外로 클는지 모른다는 感想을 가질수밧게 업다。勿論、本令、實施의 實際的 原因은 銀價暴騰에 依한 中國의 財政經濟의 打擊에 잇섯든것이다。再昨年、米國이 銀價引上策을 實施할때에는 同國의 銀價引上派는 『銀價引上은 世界의 主要銀本位國인 中國의 購買力을 增進케하고、이에 따라서 世界貿易依復에 크게 有助할것이다。』를論據로하야 同國으로하여금 드듸여 銀價引上策을 實施하도록 햇든것이다。그러나 實施後의 事實은 이와正反對의 結果를中國에 招致햇다 마치 日本의 金解禁時代모양으로 中國은 그間에 多量의 銀의 國外流出을 보며、또한 物價가 暴落하야 商工業不振、農村衰退、金融梗塞、銀行倒產、輸出減輸入增의 貿易逆調增大、失業者增加、稅收入激減等等이 一時에 到來하야 財政經濟方面으로의 엇지할수업는 窮態에 빠지고 마럿다。따라서 이窮境으로부터 버서 나자는것이 今番 銀國有令의 實際目的일것은 틀림 업는 일이다。

二

그러나 이 一事를 決行하기에 잇서서 엇지하야 英國一國의 힘을 비러가지고、關係列國、그中에서도 特히 中國과 政治經濟上 가장 利害關係가 密接한 日本도 모르게 秘密裏에 計畫을 세워가지고 突嗟間에 發布實施햇느냐하는 一點이 東洋全體、延하야는 世界全體에 미치는 影響이 더 큰것이다。何故오하면 이미 紙上으로도 報道된바와가티 英國으로부터의 單獨借款에依하야 幣制를 改革하고 發券銀行에 英國人만을 顧問으로 두는等의 制度가 如實히 實施된다고하면 이에따라서 從後、中國의財政經濟에對한 操縱의實權은 英國一國의 獨占物이 되다시피 할것이니까、이것은 中國과 關係가 깁흔、特히 中國과 만흔關係를 가진 日本으로서는 그냥 가만 잇슬수 업는 일이 되기때문이다。

三

또한 이것을 觀點을 달리하야 본다면 이問題의 推移如何가 直히 國民政府自體에 잇서서는 所謂 歐米派의 實權掌握을 意味하는것이며、다른 한便으로는 銀國有令實施는 國際關係에 두고、日英兩國의 對立을 誘致할 性質의 것이 되는것이다。이러케 보아오면 單純한 이 問題만을 가지고서는 東洋에 重大한 風雲이 이러날것으로 까지 想像하는것은 若干、지나친 생각일는지 모를것이나、事態의 推移 如何에 依해서는 그다음 갈만한 風波는 이러날는지 모른다。따라서 이問題는 그것이 波及하는 經濟的影響보다도、國際政治及 外交에 미치는 影響이 더 큰것으로 보인다。

## 高橋藏相 岡田首相과協議

【東京電話電通】高橋藏相은 六日閣議散會後 首相官邸에서 岡田首相과 會見하고 約三十分間에 亘하야 英國의對中 借款問題에 對하야 協議한바이엇다

# 對英借款으로 軍備擴張斷行?

## 于先空軍整備部를設立乎

## 南京政府軍事會議中

【上海五日發電通】蔣介石氏는對英一千萬磅 借款의 成功과 幣制改革에 依하야 生하는 剩餘金으로서 彪大한 軍備擴張을斷行하기로 決定하고 南京에서 蔣介石氏를 中心으로 張學良、何應欽兩氏外에 楊永泰、臥忠漢氏等 蔣介石氏下의 參謀團間에 具體的協議를 進行中이다 그內容은 極秘에 附하나 大體 軍事委員會中에 空軍整備部를 設立하야 一切의 計畫實行에 當케할 것으로 右는 國民黨內의 對日强硬分子가 多年 唱導해온 空軍强化의 第一步라고 보인다

## 排日主要人物 南京으로逃亡

【北平五日發電通】日本北中軍當局이 梅津何應欽協定에 基한 糾察權을 行使하야 排日不逞分子의 掃蕩에 實力發動의 積極的態度를 取한데 刺激되어 中國側에서도 衛戍司令部 憲兵司令部等에서 關係 藍衣社員幹部의 檢擧에 着手하엿는데 벌서 身邊의 不安을 感하고 南京으로 逃走한者도 不少하다 主要한 逃走者는 如左하다

一、軍事分會海軍組長 (張學良直系)

一、北平電話局長及電報局長

一、國民黨機關紙華北日報主筆

一、市政府職員數名

## 最近南京政府部內 抗日主戰論擡頭?

【北平五日發電通】南京政府部內에 最近 抗日主戰論이 擡頭하야 日本側이 强調하는 親善工作과 全혀 相反되는 意識이 相當히 有力하게 內燃되고잇는것은 자못 注目할 現象이다 그리고 右는

一、駐蘇大使 顔惠慶、駐土大使 賀耀祖等 親蘇政策이 南京政府를 動한것

一、汪兆銘氏의 遭難이 親日政策停滯의 宣傳材料가 되것

一、對英一千萬磅 借款을 로 歐米派의 全面的 進出이 明瞭하게 되것

一、中央軍에 依하야 江蘇省方面에서 中國空前의 大演習이 計畫되어잇는데 右는 態度曖昧한 山東省의 韓復渠를 制壓하기 爲한것이오 日本에 對한 一種의 主戰的제스추어다

一、陝西省 西安을 最終戰鬪地로 決定하고 隴海線 西端

## 大演習御統裁次 天皇陛下御進發

【東京電話電通】天皇陛下께옵서는 今年度 陸軍特別大演習을 御統裁하시기 爲하사 六日 劍璽를 捧하시고 九州로 御進發하옵실터인데 陛下께옵서는 皇祖發祥의 地 宮崎縣下에 行幸하옵시는것은 累代天皇의 御時代以來 實로 一千八百年만의 御盛儀로서 참으로 御意義깁흐신 行幸이시다 當日 陛下께옵서는 皇后陛下 皇太子殿下 御錢送裡에 陸軍式御裝을 하시고 湯淺宮相供奉으로 午前九時二十五分 宮城御出門、同九時卅五分 東京驛御發車 同十時四十五分 橫須賀港內의 壽聲한 皇禮砲中에 同驛御着 同十一時 再次 御用의 光榮에 浴한 軍艦比叡에 御乘艦、十一時五十分 再次 發射되는 皇禮砲中에 一路 鹿兒島로 向하사 御發航하옵실 御豫定이옵시다

# 平津衛戍司令部 藍衣社員六名逮捕

## 日本側에서引渡要求

【北平五日發電通】平津衛戍司令部는 昨四日까지에 徐慶德以下 六名의 藍衣社員을 逮捕하야 嚴重取調中이든바 四日北平憲兵隊에서는 岸本隊長이 親히 衛戍司令部에 到着하야 一一히 實檢하고 一旦 共同取調를하엿다 一派는모도 有力한 藍衣社員인것을 自白하고잇는데 徐와如한사람은 多數의 日本人을 殺害하엿고 또北平藍衣社 員長延昌으로부터 바든 親展書를 所有한等 厭然한 確證이잇서 日本側은 津東關係를 取調하기 爲하야 中國側에 引渡를 要求하엿다

# 經濟的意義보다 政治的意義重大

## 中國의幣制改革 (二)

徐椿

三日에 布告되여 四日부터 實施된 中國의銀國有令은 國民政府當局者와 英國과의 秘密工作의 所産으로서 그以外의 列國에 는 全然 意外의 突發事이엇든 모양이다。말하면、中國과 가장 密接한 利害關係를 가지고 잇다고해야 될 日本도 모르게 한일이다。그러나 日本으로 보면 그 事件이 日本의 言動에는 陰凶한 意味가 多分으로 包含되여 잇슴을 想起할것이다。今番 此事의 張本人인 對中經濟使節 리-쓰·로쓰氏가 中國으로 가는途中、東京에 들넛슬적에 九月十日、廣田外相을 外務省에 訪問하고

『渡中後는 英大使館의 一員으로서 中國經濟事情을 視察하고、同國을 救濟할 어떤 具體案을 樹立할 方針이나、特別한 計畫을 미리 가지고잇는것은 아니다。從來는 報告에 依해서 아는 程度에 不過한故로 渡中後는 現地의 事情에 卽하야 細密한 硏究를 할터이다。그러니 日本外務當局의 意見도 들려주기를 希望한다。』

는 旨의 意見을 話題로 내노코서는 氏는 中國財政經濟問題에 對하야 主로 貨幣改革問題를 中心으로 여러가지 質問을 連發하엿든것이다。

리-쓰·로쓰氏의 이 質問에 對하야 廣田外相과 重光次官은

『中國硏究는 自來로 難事다。特히 中國의 財政經濟의 事情은 歐米各國과 달러서 極히 複雜한 關係에 잇다。一方에는 上海와 가튼 近代的 經濟機構와 이와 全然、對立된 一般農村과 가튼 原始的經濟機構와가 混在해 잇다는 것이 中國經濟의 實體를 形成하여기때문에 天災地變이 齎來하는 經濟的影響은 想像할수업슬만한 程度로深刻하다。貨幣觀念에 對해서도 歐米人의 생각과는 大端히 다르고、또 日本人과 中國人과의 사이에도 相當한 懸隔이 잇는 모양이다。中國人의 생각에는 銀塊 그自物件이 卽、貨幣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라는 뜻의 對答을 해 두엇든 것이다。

그러고 廣田外相은 이 對答에 이어서

『閣下가 調査한後、結論에 到達하야 어떤 可能한 具體案을 作成하거든 日本政府에도 提示하야 意見을 交換해 주기를 바란다。』

의 뜻을 添付해 말해 두엇던 것이다。

그後、約五十五日을 經過한 今日에 와서 생각하면 그英國人은 特別한 計畫을 미리 가지지 못한것이 아니라、가지고잇섯든 것이다。그리하야 속에 딴마음을 품고서 中國貨幣改革에 對한 日本의 눈치를 떠 보려는생각이엇든것이다。그런데、率直하다고할까、單純하다고할까 何如間、그비슷한 日本外務當局은 英國人의 배속을 모르고서、連發하는 貨幣改革에 關한 質問에 對하야 오직 한마디 中國人의 貨幣觀念이 歐米人과도 다르고、日本人에 比해서도 懸隔한 差異가 잇는것으로 答해 버리엇든것이다。

그러면 英國은 이 陰凶한 생각이 무엇을 動機로 낫슬가? 하는것이 이 問題의 推移를 卜하는데 크게 參考材料가 될點일것이다。何故오하면 우리의 常識으로 생각하면 비록 英國이라고할지라도 亦是、저와가티 三大强國의 하나요、東洋의 權威이면서 中國에 對한 利害關係를 저 以上으로 가지고 잇는 日本을 돌려노코서 對中工作을 혼자 해 내일수 업다는 事情쯤은 모르고 덤볏슬理는 업슬것이기 때문이다。그러기때문에 今番、英國이 關係列國、特히 日本을돌려노코서 이런 일을 行한데는 반드시 어떤、特別한 動機가 잇섯슬 것이 分明한 일이다。그런데 이點에 對해서는 勿論、追後로 漸次、슬슬 事實이 暴露될것이오、또한 今은 事實이 綻露되기前에도 여러가지 觀測이 나올 것이나 今으로서 보건대、國民政府當局은 그들의 보는바대로、또는 派黨關係로 따로 動機가 잇슬것이나 英國으로서 그機會를 捕捉하야 今番의 英中合作工作을 演出한 根本動機는 이것에依하야 東洋에 새로운 風波를이르켜 가지고、目下、伊에 問題로 因하야 歐洲에 集中되여잇는 世界注視의 標的을 東洋으로 옮겨보려는 意圖로부터 나온것이 아닌가고 생각된다。

따라서 今番의 中國銀國有令의 實施問題는、此番 中國又는 世界全體的으로나、日本으로 보나 經濟的影響보다、國際政治的外交的影響이 幾十倍나 더클것으로 推測된다。

# 國府首席後任은 閻錫山氏로內定

## 林森氏來月任期滿了

【南京五日發電通】國民政府首席 林森氏의 任期는 十二月二十七日로써 滿了되는데 그後任者는 蔣介石氏의 推擧에 依하야 閻錫山氏로 內定하엿다 中央의 閻錫山擁立策은 蔣介石氏의 積極工作으로 大成功을 거둔셈이라는것 等으로서 或은 蔣介石氏가 歐米派 依支를 爲하야 從來의 排日政策을 相當한 態度로 方向轉換하야 國民의 反對를 凌하려는 제스추어라고도 보인다

## 英銀行團의 態度未決定

【上海五日發聯合】中央銀行의 在銀引渡要請에 對하야 上海英國銀行團은 五日朝來 個別的으로 協議하엿다 一部에는 英銀側이 中央銀行의 要請을 應諾하고自進하야 銀을 引渡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하나 商業上의 政策에서 一部에 異論도잇서 五日中에 決定을 보게되기는 至難하다고 觀測된다

# 米國亦是中國에 二億元借款供與?

## 英國은다시巨額크레딧트給與

## 幣制改革積極的援助

【上海五日發電通】英中一千萬磅借款成立에 刺戟된 米國은 中國의 幣制改革에 積極的援助를 與하기로 決定하고 約二億元의 借款을 成立시키려고 目下 中國側과 折衝中이라고 傳한다

【上海五日發電通】中國의 新貨幣政策에 對하야 英國側을 除한 各外國側은 벌서부터 그前途에 不安의 念을 抱懷하고잇는데 當地外國側은 銀行券은 外國通貨만에 對하야 兌換한다고 하나 今日의 爲替市勢를 維持하는것은 國民政府로서는 困難하다 또 資本의 海外逃避도 不可能하고 또 現在市場에 流通해잇는 紙幣는 十四億五千萬元乃至 十五億元인데 對하야 在銀은 九億九千萬元에 不過하므로 今後 多量의 海外銀流出을 보게되면 重大한 危機에 直面하게될것이라고한다 그러나 孔祥熙氏는 確信으로써 今回의 擧를 取하게되것을 보면 今回의 中借款成立件에 對해서는 全혀 沈默을 지키고 잇는데 英國으로부터 巨額의 經濟的援助를어든 事實은 率直히 이것을 認定하고 日本側의 反對意向과如한것은 오히려 不可思議한일이라고하야

## 日本反對等은 不問題視

## 國民政府意氣揚揚

【南京五日發電通】國民政府는英國과의 사이에 一千萬磅以外에 或은 英國과의 크레딧트가 이미 諒解된것이 아닌가하는 觀測을 내리고잇다 中國은 外國의 援助에 依하지안코는 經濟的破綻은 不免할狀態에 잇스므로 이에對한 日英의 共同援助를 日本側이 拒絶하엿슴으로서 中國은 英國을 힘입어 借款을 成立시키지안홀수 업섯던것이다 라고하야 此際에 日本側에서如何한 反對工作을 하더라도 이것을 突破하고 旣定方針에 依한 政策을 遂行하려고한다

# 一事一言

## 새싹들 (二)

長白山人

孫基禎君이 東京에서 마라손世界記錄을 깨트려 十萬大衆에게 [illegible]의 榮光을 바닷다。氷上、蹴球、籠球等 朝鮮人은 스포츠에 偉大한 素質을 보혓다。이것은 確實히 새朝鮮의 새싹의 하나다。

우리 朝鮮人은 옛날에는 漢族에게 大弓人이라、[illegible]이라、[illegible]

그러면서 [illegible]이라는 [illegible]를 바닷다、[illegible]、交友 [illegible] 이라 [illegible] 는것에서 우리네의 [illegible] 色을 엇을수잇고 [illegible] 에서 우리 先人의 [illegible] 一新을 엇을수잇거니와 [illegible] 以來로 다른 文物이 다 [illegible] 一新을 밟아오는 중에 忠、孝、信、[illegible]

[illegible] 傳統的 [illegible] 이라 [illegible] 것이 [illegible] 民族的 [illegible] 文化 [illegible] 으로 [illegible] 일것도 업다。

그러나 우리는 近來에 스포 [illegible] 에 나타나는 [illegible] 을 보아 [illegible] 의 [illegible] 을 [illegible] 고 마음이 든든함을 깨닷겟다。그러나 今日의 [illegible] 精神은 選手本位 [illegible] 하는 弊害가 잇다。아모리 [illegible]

大한 [illegible] 것이、全民衆에 [illegible] 하면 民族的 [illegible] 의 效果는 업는것이다。우리는 [illegible] 에서는 [illegible] 것을 [illegible] 하기를 [illegible] 이다。

우리는 스포츠、[illegible]、[illegible] 를 바키어、[illegible] 全國民的 [illegible] 에 [illegible] 의 [illegible] 을 [illegible] 하야 [illegible] 八年이나 [illegible] 다。朝鮮의 [illegible] 의 [illegible] 中에 [illegible] 하나다。

# 立候補者數로는 勞働黨이第一黨

【倫敦四日發聯合】總選擧立候補者屆出은 四日午後三時三十分 一旦끗막기로되여 大選擧區의二名을除한外에는 全部候補者가 決定되엿는데 候補者를 發表한結果 豫想대로 各選擧區에서는 保守勞働兩黨의 全面的對抗을 보게되엿다 勞働黨은 一九三一年의 總選擧當時의 候補者를 거이그대로立候補하야 斷然 이一戰에서 捲土重來하랴는 意氣를보혀 候補者의數는 政府黨인 保守黨을 凌駕하야 五百五十二名에 達하여잇다 그리고無競爭區數에잇서서는保守黨이 斷然만허 二十二名에 達하고 볼드윈首相 런시만商相은 無競爭의光榮을 獲得하엿다 副將格인 첨버린藏相은 버밍검選擧區에서勞働黨候補를 相對로 苦戰을한다고報道되며 外相호어氏도 첼시選擧區에서 連日連夜 大活動을 繼續하고잇는바 全然內外多事로 寸暇조차업는 現狀이다

## 外交部次長代理決定

【南京四日發聯合】汪精衛氏의病臥中 外交部 政務次長은 徐謨氏 常務次長은 唐有壬氏가 代行하기로 決定되엿다

## 夕刊後市況 五日

◆大阪 滿期 氣配◆

| | | |
|---|---|---|
| 大新 | 九七二〇 | (一〇高) |
| 鐘新 | 一三九八〇 | (五〇低) |
| 日產 | 七九二〇 | (二〇低) |
| 東新 | 一六〇八〇 | (一〇低) |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九八六〇〇 先限 九八〇〇〇

◆滿井 人絹 後引◆ 當限 大四二〇 先限 大四四〇


日本서最初의蓄音器月賦販賣

月賦通信販賣

小唄 勝太郎

小唄 勝太郎

蓄音器空前의大英斷………

단지 初回 金八圓 으로 이 蓄音器와 (寶)

빅타-專屬 流行小唄界의 花形 勝太郎의『島の娘』外에 新譜레코-드三枚 針四百本 이것으로 당신의 家庭에

世界的名器メリーポータブル新發賣品

定價三十五圓의品五〇〇臺限犧牲的特賣

價額十七圓也(初回八圓殘金每月三圓式三個月拂)

殘額拂込方法

殘額은三月賦保證制度로 每月三回에 分割하야 郵便局에서 集金할 것으로서 殘額代金을 바든後에 認定으로 安心하십니다

申込方法

葉書로서申込次第 곳 同金八圓의代金引換으로 發送함 荷造費는當店負擔 運賃은貴擔

岐阜市加納本町三 合資會社 服部商會蓄音器部 電話(長)二四四〇番

ビクター專屬 勝太郎

都會散賣

鑛山用藥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點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筆生

適齡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곳되는趣味와實益 … 詳細通知함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英語를아는利益과愉快와는無限

英語는 世界語

躍進日本의 旗幟下에 現在海外에 內地에 商工業의 第一線에 活躍하는 幾萬의 靑年들은世界共通의 商用語인「英語」를武器로하야 着着繁榮에의 一路를邁進합니다 보십시오! 現在世界中에 어데를가거나 通用하고 어데로편지를 쓰거나읽게되는말은 亦是英語外에는 업다고할것입니다。每日의 新聞雜誌에 라디오에 또모든商品에 英語업는것이 잇겟습니가? 이와가티英語는 이미 我等의 日常生活에들어와잇습니다

文部省의方針

그러하기에 我文部省은 中等敎育에 一週數時間의「英語」時間을課하고 高等學校、專門學校에서도 入學에當하야 于先「英語」의學力을試驗하기를 規定하엿슴에지경입니다

(我國英語界의父井上十吉先生)

井上英語講義錄

은 目下全國二百餘의中等學校에서 採用되는我國唯一의完備된英語通信敎授로十二年前에創立된後로卒業生五十餘萬現在의在學生은全國에서十七萬에及합니다。執筆者는英語辭典二百萬部를普及하야世界的記錄을지으신井上十吉先生그平易明快한講義는有名한것으로不過十二三歲의少年까지도더러더러顯著한進境을 보입니다。

을勸하고자하는

一月一圓廿錢

『井上英語講義錄』은一個月二回(一日과十五日)의配本으로、每月三回號外에『一圓英語雜誌』를發行하고、其他『英字新聞』『라』『레코-드』等九大附錄을贈呈하고、僅僅三個月에中學校에서一個年間英人敎師에게배우는것과同等以上의實力을줍니다。그리고또學費는의低廉이오、또試驗成績優良한學生에게는學費免除의特典이잇스므로偏局거의學費업시卒業하는사람도적지안읍니다。레코-드의吹込者는라디오英語講座로親히아시는文理科大學敎授토-마스先生그明快한純英國式의發音으로引導합니다

秋期新學期開講

本校에서는十一月一日부터昭和十年度秋季新學期를開講하며、目下新入學者를募集中입니다。諸君은此好機를일치마시라。

(所込申)

內容見本送呈

葉書로申込하시는대로七十頁以上의아름다운講義見本을送呈합니다。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九番地

井上通信語英學校

振替東京三〇二八八番

本校主催靑年英語雄辯大會에서井上十吉先生의審查長

英語時代가왓다!! 靑少年諸君! 이가을에는

英語를 武器로삼읍시다!!

日本唯一의 井上英語講義錄을勸함

新築落成開館披露公演陣

裵龜子樂劇團 鄕土訪問短期公演

十一月三日부터 裵龜子樂劇團의鄕土訪問大公演과大作映畫를同時封切公開하는大開場의 … 期待에奉副하고자합니다

漫演「멍텅구리第二世」一幕 寸劇「月給날」一景 舞踊劇「汲水婦」一景

其外二十餘名의 … 

東洋劇場 竹添町一丁目

『未完成交響樂』의名匠 ウイリ、フオルストが再び此處に發表する嬉の名畫!!

たそがれの維納 全十卷

アドルフ、ウオールブリユツク パウラ、ヴエツセリイ

これは華麗な詩です 戀と酒と唄の都ウインの哀愁を描く巨匠ウイリ、フオルスト第二の獨歌篇

新興キネマ大藝超特作サウンド版 原作大佛次郎監督松田定次 大谷日出夫、久松澄枝 主演

愛憎一代 全八卷

若人の世界 全六卷

中央館 永樂町

# 虛弱學童問題座談會 ●

## 宿題의 負擔過重 健康에 影響重大?

### 初學年은 訓錬本位로 함이 어떨가?

### 通學時에 父兄同途의 弊端

金編輯局長 나는 선븐사사람이라기보다 한가정의 학부형의 자격으로 말슴하자면 우리집 아이들은 아츰시간이 넉넉하여도 아츰밥을 먹지안코 그냥책보를 싸가지고 학교로다라납니다 반찬도 시원찬은 변또를 가지고가서 점심밥은 학교에서 먹겟지요 저녁에 늣게 집에도라와서도 시장한터이지만은 구뷔를넘겨서 저녁밥을 또잘먹지 안습니다 그리하야 밥상을 치우고나면 그만책상아페 안자서 숙제를를기시작합니다 이와가티 매일 반복해가니 영양이 조흘수가 잇겟습니까 신체검사표는 을(乙)을 마저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하는것은 다른 시간의 원인으로 그런것이 아닌가 학교공부시간이 너무길지 안는가 숙제가 너무 과중하지안는가 생각됩니다 보통학교인학년에 처음에 드러갓슬적에는 오전에 학과를 마치지마는 내 생각가태서는 일학년부터 상학년까지는 한가지훈련소에 다니는양으로하야 상학시간부터 늣게햇스면 조흘것갓고 저녁에 집에 도라오는 시간을 빨리햇스면 조치안흘가 생각됩니다 학교선생되시는분의 처지로서는 어떠케 생각하십니까

[illegible]來氏 글세요 아이들을 규측적행동을 시키기 위해서나 습관을 가지게하기위해서 어릴적부터 공부를 다잡아해야 될줄로 압니다 교과서가 그러되여잇스니까 오학년 륙학년부터는 상급학교시험준비를 하는것갓다는 평판이 잇서서 금번사월부터는 보통학교장회의의 결의로써 정한 과정시간이 잇다드라도 오후다섯시반에는 꼭집에 도라가도록 되여잇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드라도 시간이외의 공부를가위 각학교가 경쟁적으로 시키엿이 잇섯습니다 그러나 금번부터는일체히 각학교가 다가러 그것을 시키지안키로 실시하고 잇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잘 못 먹는 상태를 보면 조선가정에는 너무도 항상 가튼 음식물을 먹이기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가끔 번가라서 먹엇스면 식욕이 좀 달려질줄 [illegible]

리학송씨

[illegible] 식을 어른 본위로 상하니까 아이들의 입에 마지안해서 먹지 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먹고시프냐고 무러서 적당한것을해서먹입니다

그러고 학교 아이들이 반드시 그 가정이 넉넉하다 해서 영양이 조타고만 말할수 업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사선생들이 훈직을 하는것이 조타고 하엿지마는 좀 넉넉한 집 아이들의 정신방을 보면 늘 게란이나 고기만 너허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illegible]게 합니다 [illegible] 일변밥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것이 폐해가 되는줄로 압니다 그것은 어떤가 하면 아이가 교실에서 나오면 아이보는 사람이 학교한쪽 구석에 데리고 가서 꼭 붓들고 섯습니다 매일 그러케하면 운동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인력거에 태워가지고 다니거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두지말도록 경고합니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일학년에 입학하야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내의 한도에 그치도록 하게합니다 그러나 그아이들의 조모되는분이 흔히 학교에 입부러와서 한쪽구석에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잇는일이 잇습니다 될수잇는대로 그리하지말라고 금합니다 아이가 키만 크고 체중이 가벼우면 개평(槪評)이 갑이못됩니다 신장과 체중이 상반해야됩니다

서석전씨

**出席者氏名**

來賓側 ▲朴秉來氏(城大病院伊藤內科醫師) ▲李[illegible]氏(城大病院小兒科醫師) ▲沈[illegible]氏(京城府學校醫) ▲李鶴松氏(세부란스病院醫師) ▲崔[illegible]來氏(校洞普校訓導) ▲徐石田氏(學務[illegible])

本社側 ▲主筆徐椿 編輯局長金炯元 次長咸尙勳 社會部長李相昊 記者 李[illegible] 金起林 金奎澤 李[illegible]

# 中國人魔窟誘引少女 三年前失兒親母突現

## 틀림업는내딸인데 少女는極力否認

### 本紙揭載寫眞을손에들고 母女間에劇的相逢

기보=부내 룡산서(龍山署) 사법계에서 지난번롤핀(?)밀매혐의자로 검거해온 중국인엽다가운데서 산동성 연태(山東省烟台)출생 당가(唐哥)와 및 그의안해 진씨(陳氏) 두남녀가 기르고잇는 교자(橋子)、쌍자(雙子)、쌍희(雙姬)를 세자매가 뜻박게도 조선아해들인것이 드러나자 그서에서는 갑작이 긴장해가지고 이것은 요사이 자조 발생되는 소녀실종사건에 어떤 관련이 숨어잇는동시 무슨 기픈내용이 잇슴에 틀림업다하여 그들을 엄중히 추궁함과함께 비밀리 뒤를밟어 조사해나려오든중 닷새날 아츰에 뜻박게 본보지난달 삼십일부 석간 이면에 기재된『소녀유인마굴발현』이란신문쪽과아울러 거기에달린 사진을가지고 그서 사법계에 나타나서 쌍자소녀의 사진을 가르치면서 『이애는내딸임에틀림업는듯하니 어서 맛나게해주오』하고 눈물어린얼굴에 초조한 빗을띄우고애원해온 젊은 안악네가잇섯다。그는 부내 도화동(桃花洞) 륙십륙번지 마차군 최주봉(崔柱鳳)의 안해 리선천(李先天)으로 지금으로부터 삼년전인 재작년여름 어떤날 오직 하나인 순희(順姬) 당시 일곱살된 귀여운딸이 그이웃집 소녀와함께 놀러나간채 이내 삼년이란 긴세월이흘러가도록 실종되여 찻지못하고 눈물의날을 보내오다가 지난 나흔날저녁에 우연히 그이웃사람이 일상 사랑하는딸을 일허바리고 련민의날을 보내는것을 마음에 기피삭여두어 동정해오든터이자 지난 삼십일부 본보를보고 황망하게 최주봉의 내외를차저서 그오린 기사쪽갓을 보이며 이사진이 그대들의 딸과 얼골이 몹시 닮엇스니 차저보도록하라하자 이말을들은 그들은 기뻠(?)과 놀라운남어지 울멍거리는가슴을 움켜잡고 단숨에 룡산서에달려가서 이사정을 호소한결과 동시 형사대는밤아홉시경 즉시로 전기 서소문정 당가의집으로가서 문제의 쌍자(雙子)쌍희두소녀를 데려다가 대면을시켯든바 차저온 녀자는 쌍자를보자 삼년전에 일허버린 내딸 순희에 틀림업다고 울며 불며 극적 장면을 보엿스나 문제의 소녀는 나는 중국사람이요·조선사람이아니라고 악을쓰고 부인하야 곡절기픈 장면을 보엿다 (사진은 쌍자?순희?)

## 雙子? 順姬? 疑問의 "때려요!" 一句

### 少女는龍山署서保護檢束追窮 雙子는永永中國少女가될가

별항과가티 본보에 특보된기사가 기연(奇緣)이되가지고 뜻밧게 쌍자소녀가 자기의 딸임에 틀림업는듯하니 맛나게해달라고한 최주봉의안해 리선천에게 호소를받은 룡산서사법계에서는 즉시때를 놋치지안코 형사를 출동시켜 당、진、두남녀의집인 서소문정(西小門町)팔십번지의 삼호를 습격하여 쌍희과가티 당가의 형되는자와함께 쌍자쌍회 두소녀를 인치해다가 의문의 실종소녀의 어머니인 최주봉의 안해와 『드라마틱』한회견이 그서형사실에서 전개되엿다 삼년동안일헛든 딸을 맛나보게되리라는 기쁨일념에 마음과몸이 한쪽에치우첫기도하면서 형사에게 안동되여 나타난 어머니!』앗『소리와함께 쌍자소녀를 덥석안으며『네가 내딸순희냐?』하고 울음에매친 목소리로 부르지젓다그러나 육친(?)인의 문의어머니를 맛나는순간의 쌍자소녀는 공포일념에 사로잡혀 오죽 울뿐이엿다。

그소녀를 미저의거애 덥석안어본 리선천은 다시금 머리로 눈으로 코로 님으로 온모습을 뜨더살펴보다가 『틀림거지안니마을숙나온귀둥수、쌍까풀진눈조리 금밧빗나는 머리털들을 쏫다드머보고는 중국복색을하고 입머리를자르고 변형될대로되엿스나 삼년전일허바린 순희의일굴상될때 모습이뚜렷이 그대로잇다고 하엿다 그러나 쌍자소녀의레도는 어떳는가? 출생지는、산동성、아버지성은당가、어머니성은 진가에 저는분명히중국사람이라고 우기면서도 무엇을의미하는 말인지? 아버지어머니들이 따리니까 무섭다고 작고울고만잇섯다 그리하여 취조하든계원은 『너의부모들도 네가확실히 조선애라는데 어째 바로말하지안느냐?』고달래고 얼러보앗스나 여러해동안 음흉한 아편중독자인 중국사람의마수에서 엄혹한 매질과 갈음을당하고 길러나려온 소녀들이지라 쉽사리저의들 부모?까지도 번연히『조선 소녀요』하고 그 사실만은 자백햇슴에도 꼿내 이를 앞올고 근본부터 부인하는것은 어린소녀로 그럴듯한 일이려니와 계원압해서 『무서워요! 무서워!』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무의식(?)하게 부르지진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것일까? 열의 아홉까지『내딸이요』하는 어머니(?) 『나는 조선에가 안이요 무서워요!』하는 딸(?)의 이 알수업는 이상한 말은 서로 어떠것이 옳을것인가? 오로지 의문의 열쇠는 쌍자소녀의 의식(?)엇시 내던진『무서워요!』에 잇는것으로 룡산서 에서는 밤이 느진과 함께 어머니(?)되는 리선천은 우선 돌려보내고 쌍자、쌍희 두소녀는 그서 류치장에 보호검속을 하엿는데 무엇보담 이사건의 장본쇠를 월하게 열 열쇠를 가진 자는 당가의 형되는 사람으로서 그도 두소녀와 함께 류치 하고 준엄한 추궁을하는중으로이사건의 끄치 장차 어떠케 매처질는지 크게 흥미를 끄을고잇다

# 西氷庫公普女生 電話脅迫漢逮捕

### 李少女가말한殊常漢容貌가端緖 龍山署서嚴重取調

서빙고 보통학교(西氷庫普通學校)오학년생 리복순(李福順)(一三)이란 소녀를 정체모를 괴인물이 전화로써불너놋코 협박유인한괴사건에 대하야는 기보와가튼전화가잇슨즉시부터 소할룡산경찰서 서빙고 주재소에서 이래이음흉한 범죄인을 체포코저 각방으로 엄탐중이엿는데 뜻박게도 전일 리복순이가 학교를 통학할때에 룡산 위수(衛戍)병원압헤서 수풀속으로 끄을고 들어가랴든 괴청년의 용모는 현재 시외서빙고리(西氷庫里)이백이십일번지 신태룡(辛泰龍)(二七)이란자와 비슷함으로 오일오전열한시경에 동주재소 홍(洪)적평(赤平) 최(崔)세순사가 그의집을 포위하고 어렵지안케 체포하여 엄중취조한결과 과연사실을 자백하엿다 그자는 본시 서빙고보통학교에 재학당시에도 녀학생들을 지분되대거나해서 싸홈대장이란 별명까지밧고 지금으로부터 삼년전에 중도에 퇴학을당한 부량소년이라는데 수일전에 이미 결혼까지한자로서 그가리 전화로서 협박한것은 평소부터 리복순에게 다른생각을두고 유인할라든것으로 본서로 인치한후 방금엄중취조중이다

# 自働車에轢死 列車엔自殺

### 昨夕義州通과龍山서

오일오후여섯시반경에 경원선(京元線)원산(元山)행오예(?)열차가 철도그라운드엽을 지나든 [illegible]벌』로부터 동쪽으로 이백미(?)『어름』을떼러진곳에 다달엇슬때 돌연사십세 가량된 조선녀자한명이 선로에뛰여들어 오른편다리가 끈허지고 머리와 외편다리가 산산히부서지는 끔찍한자살을 하엿는데 즉시소관룡산서(龍山署)에서는 고교(高橋)사법주임이 현장을 림검하엿스나아직껏 그신원을 알수업다고한다

×

동일오후여덟시 이십분경에 시내 경성정(京城町)삼정목 방성옥(芳盛屋)압 큰길우에서 시내 의주통(義州通)일정목 일백이십구번지 김희태(金熙泰)(二七)가운전하고가던 경(京)이천사백구호 자동차에 사십세가량된 남자가 치어서 치명상을 입고 부근 청엽병원(靑葉病院)에 입원하야응급치료를 바닷스나 얼마안되여 절명되고 말엇는데 소관본정서원이 현장에 출동하야 조사한결과 치여죽은 사람의 호주머니속에잇는 편지로서 그는시내 [illegible]삼십 사번지 박덕이(朴德伊)인듯하다고한다

# 土役工事中에 人夫一名即死

### 昨日淸雲洞에慘事

하로에 칠십전의 삯전을바다서 궁주리는 창자를 메우라다가 바위밋헤깔려서 무참히죽어버린불상한로동자가잇다 시내 청운동(淸雲洞)산(山)사번지의 어호부근의 국유림을 주택지로 개수하려고 목하 청부업자 결성조(結城組)가 도로개간 공사를하고잇는데 오일오후 여섯시십분경에 그곳에서 남삭 칠십전을바드라고 높피 여덟자가량이언덕을 잇훙로 파고잇뎐 집도업시 일터에서 일터로 떠다니던 리봉녀(李鳳汝)(二七)라는 로동자가 고만 언덕이 문허지는바람에 바위밋헤깔려서 무참히도즉사하고말엇다

# 襄陽海岸에大暴風 廿餘隻破船漂着

### 交通杜絶로詳細는尚今不明

【大浦支局特電】강원도 양양(襄陽)바다는 오일에 갑작이 거칠어저서 고기잡이 하려 나갓든 어선들은 풍랑을맛나 손해가 만흔모양이다 교통이 끈허젓기때문에 확실한 소식은 알수업스나 부근 해안에서만 이십여척의 파손된 배가 표착하는 한편 시체도 속속표류하고잇다

## 韓箕道氏錦衣還鄉

사변전에 세부란쓰의학전문학교를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사변동안 류학중이던 한기도(韓箕道)씨는 몃칠전에 금의로환향하엿는데 씨는 그간듀변지(市)듀변대학에서 생물학을전공하고 『시카고』서북대학(西北大學)에서 위장내과(胃腸內科)를 연구하엿다는바 귀향즉시로 그의백씨 한기형(韓箕亨)씨가 경영하는 황주(黃州)읍내 한일의원(韓一醫院)에서시무할터이라고한다 【사진은한씨】

## 運動競技

# 올림픽派遣候補로 孫、柳、南三君推薦

### 明春一月에合宿練習

【東京電話霸通】日本陸上競技聯盟에서는 지난二日과 三日에行한全日本陸上競技選手權大會의成績과밋今年度의 成績을 基礎로삼아 明年獨逸올림픽派遣選手를 銓衡한結果 ▲短距離에 吉岡外十名 ▲中長距離에 柳長春外六名 ▲마라손에孫基禎 南昇龍外六名 ▲障碍에今井外六名 ▲跳躍에原田外二名 ▲投擲에阿部外六名等 五二名의候補選手를推薦하엿는데 前記候補選手는 明春一月上旬부터 中旬까지 神奈川縣鎌倉에서 合宿練習을行할豫定이라한다

## 世醫專팀追加 籠球聯盟戰에

來八日부터開幕될 籠球聯盟戰의 『스케쥴』은昨報한바어니와 靑年會에 世富蘭偲醫專이 追後參加하기로되여 다음의日程대로 每夜九時五十分부터行할터이다

◇世醫專의競技日程 ▲九日(土)世專…K靑 ▲十二日(火) 延專…世專 ▲十四日(木)世專…高醫 ▲十五日(土) 法專…世專 ▲十九日(火)三角友…世專 ▲廿一日(木)世專…普專 ▲廿二日(金)普專…世專 ▲廿三日(土)世專…수리

庭球에優勝한普成軍

## 六中等教員庭球。 普成優勝

### 二位는徽文高普

府內六中等校庭球聯盟主催의 敎員庭球리ー그戰은 지난二日午後二時부터 普成高普及 佛專코ー트에서 열리어 日沒로因하야所定의 게임을 完了치못하엿다함은 旣報한바와갓거니와 五日午後四時半부터 普成高普코ー트에서 繼續舉行한바 이날中東徽新、養正의 세팀은 事情으로 棄權하엿슴으로 中央對普成戰만을行하야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普成高普軍이 優勝하엿다

| | 【普成】勝 | | 【中央】 | |
|---|---|---|---|---|
| ○ | (姜在鎬·徐元錦) | 4…3 | (馬善恒·阿部) | × |
| × | (河允廣·佐藤) | 2…4 | (李常勳·村昌夏) | ○ |
| ○ | (朴成熙·趙晪河) | 4…2 | (朱洪錫·沈亨鎭) | × |

◇得點順位表

▲第一位=普成高普 五十一點 ▲第二位=徽文高普 四十九點 ▲第三位=中央高普 四十六點 ▲第四位=養正高普 二十七點 ▲第五位=中東學校 十七點 ▲第六位=徽新學校 十六點

## 京城歡迎會

### 昨夜 釜山서開催

【釜山支局發電】全日本地方對抗卓球選手權大會에出戰하야 堂堂히優勝한 京城卓球團一行은 昨五日午後六時釜山入港의 德壽丸으로 元氣旺盛하게 到着하엿다 埠頭에는 釜山體育會關係者와밋 有志三十餘名의 出迎이잇섯스며 一行은當夜 釜山府貿市場에서열린 釜山體育會主催의 歡迎會에 臨하엿다가 翌日인六日午後四時부터 釜山卓球團과一戰을交한다음 同午後八後釜山驛發車로 馬山에이르러 七日에 全馬山과對戰한後 八日頃에는 京城에凱旋할豫定이다

## 卓球代表三팀歸京

### 養正、京師籠排球와

明治神宮體育大會에 遠征하야 最後까지 奮戰한 養正高普籠球部、朝鮮卓球代表及 京城師範排球部等 一行은 昨五日 午後七時二十五分 京城驛到着列車로歸京하엿다 (寫眞은 京城驛頭에 나린 遠征團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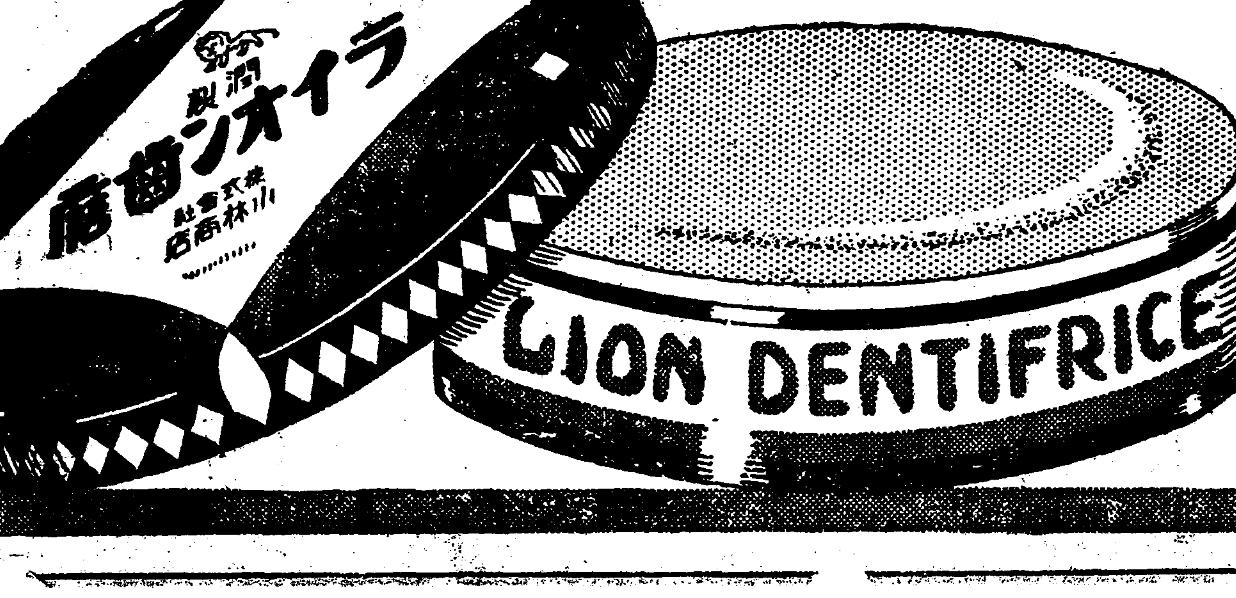
# 潤製 라이온齒磨

가루가날지안코使用하기조흔•廉價한德用品

齒牙는왜닥지 안호면 안되나?

齒牙를不潔하게하면虫齒가侵犯할뿐外라여러가지病의原因이됨으로每日아츰이러날때나就寢하기前에齒를깨끗하게닥지안으면안됩니다

香氣도좃코 齒磨의틈까지 깨끗하게 닥글수잇는 齒磨粉은 무어니 무어니해도 ライオン齒磨粉外에는 업슬것이다



## 地方論壇
### 獸肉販賣業統制에對하야
春川支局 一記者

當年五月中 春川警察署에서는 春川邑의 獸肉販賣業者等이 合同하야 獸肉販賣合作社를 組織하야 從來의 營業者 五六個所의 販賣者가 有하든것을 單一個所만으로 統一시키는關係上 現在에 잇서서는 完全히 獨占的營業으로 되어잇슴으로 이獨占化한 關係上 여러가지弊害가 만타는것이다 [illegible]

그러면 一般의 不滿은 무엇인가? 첫째로 春川獸肉時價가 他外로 빗싸다는것이다 江原道의 有數한都市 江陵 原州 鐵原과밋 春川의 [illegible] 獸肉時價는 牛肉과 豚肉每一斤에對하야 五錢 [illegible]

# 春窮期인上半期의 道路賦役廿四萬名
## 咸南道의今年上半期統計로
## 過重賦役에物議沸騰

【咸興】함남도토목과에서 집계한바에 의하면 금번춘궁(春窮)(수확기까지)도로유지개수(道路維持改修)에 주민들이 부역(賦役)으로 출역(出役)한인원수는 이십사만칠천오백사십칠명으로 출역호수(出役戶數)는 오십칠만오천칠백팔십오호인데 도로의 총연장 오백오십사킬(粁)의 인원수는 사백구십삼명이며 출역호수는 삼백팔십이호나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고원군(高原)가튼데는 일리당 출역인원수가 구백오십사명에 호수는 팔백여 사십호의다수에 달한다는바 그러지안어도 춘궁에 긔아상태에 빠지는 세궁농민에게 이와가튼 무거운부역부담은 실로 중대한 사회문제라하야 일반의 물의가 비등하여 간다고한다

### 進行列車에 三歲小兒轢死

【木浦】종촌사람의 선로를불드리는 부내련동(府內蓮洞)에 잇는 철도선로에서 지난이일오전 구시오십분에 목포에 도착하는 제삼백일호렬차가 또사람을 치여 즉사참사가생겻다——전긔시각에 동렬차가 목포역 구내를 들어오랴할지음에 련동사십팔번지 정동원(鄭東元)의 장남갑이(甲伊)라는 세살먹은아이가 전긔 장소에서 놀다가 달려오는 긔차에 두부가 중상 되엿는데 긔차는 정지하야 부상자를 차실에싯고 공긔병원(公立病院)에 수용시켜 응급수당을 밧게하얏스나 즉시절명하고 말엇다 전긔참사를 일으킨긔차이등실에탓든 모신사(某紳士)는 피해자의 정상을생각하야 목포역에 나린 즉시로 역장을차저보고 위자(慰藉)로 일금 오십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전해달나고 부탁하엿다는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그 모신사는 종방사장진전씨(鐘紡社長津田氏)라한다

# 結束은去益鞏固 初志貫徹에邁進
## ◇全面公職者大會의決議로
## 新山仁面長排斥後報

【咸安】륙보=함안군산인면장조용휘(咸安郡山仁面長趙鏞徽)씨의 사퇴이후로 간리구장 협의원등 유력 리모를 제한외에는 전부 일치결속하야 군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는동시에 태도가 갈사록 강경하야 해결의 희망이 보이지안어 방군수(房郡守)의 두번의 극력위무도 일축하고 잇기 까닭에 여러가지면정에 지장이 막대하야 사태수습에 두통중이란는데 지난일일에 다시동면송정리(松汀里)에서 전공직자대회를 열고 토의한결과 전긔 이인을 제하고는 의연히 초지를 굴하지안코 일치총사직 하기로 결의하야 날이갈사록 분규는터욱 도를놉히고 잇다는데 긔자는 전 면장조씨를 왕방하니조씨는 사태의 확장됨을 우려하는태도로 다음가티말한다

**前面長趙鏞徽氏談** 무릇 한나로서 면정이 극히 문란하고민심이 극히불안정되든 그때 죽기금이년이개월전에 지방인사의 요청과 전군수유원씨의 호족에 의하야 부임하엿든것인데 지금은 면정이 다소정돈되엿슴으로 차제에 사퇴한것입니다 그러나 나로서 대단히 섭섭한것은 군당국이후임면자를 결정함에잇서서 적어도 후진수리총의사의를 대표 [illegible] 그관인 전임면장나에게 조금도 의견을 물어보지안코 사표제출후 불과일주일만에 미리 계획적이엇지럼 후임자를 결정 한것입니다 그뿐 아니라금번 분규의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잇는줄 압니다 면장임면은 상부 사령으로 행하는것이지마는 면민의 총의를 무시하고는 지금과가티 총사직이 업다할지라도 면행정상 즉접간접으로 지장이 만흘것이외다 그러고 해직사령을주려 상급통지를 하면서 국세조사사무를 휴대하라하엿스니 이얼마나 사람을 롱락하는것입니까 공직자들이 일치사직 하야 면정에 지장이 잇게함은 대단히 유감이지마는 군당국의 처사가 너무나 경솔하엿기때문에 이와가튼 사태를양성한것도 사실입니다 금번군당국의 실태에 잇서서는 사회의 엄정한 려론과 비판이잇스려니와 좌우간 나로서는 이문제가 하로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바입니다

### 開墾地防堤弊害로 沿岸住民大恐慌
#### 關係住民當局에陳情

【安州】지난삼십일 개간제방축조(開墾堤防築造)문제로 안주군연호면(安州郡燕湖面) 입부주민대표동건(崔東健)씨와 안주읍에 거주하는 지주대표 김덕요(金德堯)외 삼인이 군에는진정서를 안주서에는 설유원을가각 한통식 제출하엿다는데 그 자세한내용은 [illegible] 청천강연안으로 미간지가만흔바 수년전부터 개간에 착수한 동면신리리의 신인은 륙십여정보의 면적을 가진 여도초(如島草)라는 미간지에 제방을 금년삼월에 축조하고그 다음 일천여정보의 면적을가진 몽석초(夢席草)를 금년팔월에 제방축조를 하엿는데 문제되는것은 상긔여도초(如島草) 제방으로 홍수포(洪水浦)강의 분류를가로막고 장수를 지류로만 흘르게하는관계로 장수의 범람으로 [illegible]

### 士兵團襲來說에 昌城署員出動

【新義州】지난삼십일 창성서창 [illegible]

### 五山高普校의 復興基金遝至

【古邑】有志側 寄贈 二七冊五山基督教會 十圓五山金日煥 二十圓定州李永龍 五圓定州東新學校職員生徒一同 卒業生側 五圓式 京城趙東賢 平原李基南 二圓定州申翊哲 學父兄側 三圓義州金德俊 十圓式義州崔用霖 龍川金德均 七十圓定州李學洙 十圓定州金昌垣 五圓式定州方心源 定州金起成 十圓順川林哲周 二圓平原金鍾瀚 一〇圓順川金應淀 五圓定州李慶源 一〇圓博川鄭基柱 三〇圓泰川郭承恒龍 一〇圓定州方 [illegible]

# 春窮期救窮策으로 備荒倉庫를設置
## 一戶一石으로道內三千餘個所
## 咸南道新案에一般注目

【咸興】함남도 에서는 춘궁기(春窮期)의 농민들의 구조를목표하여 금번도부터 비황창고(備荒倉庫)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안에 대하여 조종중의를 거듭하고잇던바 필경 금추부터실시하기로 되엿는데 이미 설치된 일천칠십칠개소에 다시 이천삼백십오개창고를 증설할 예정이며 매호 당일석식 곡류를 저장하기로되엿는데 추수긔부터도 정량상태에잇는 세궁민에게 과연그러한 유여가잇슬것인지 이계획이 처음인것만큼 크게 주목된다고한다

【昌城】(昌城邑)대안 관전현고창구(寬甸縣庫倉溝)에 십여명의 토병단(土兵團)이 나타나 당지에거주하는 농민에게 폭행을 가한으로 창주출장소원이 그동정을 내사한다는 말을듯은 전긔토병단은 동출장소를 습격할계획을 세우고 잇는동이라는 정보를 접한 창성경찰에서는 지난사일오전긔 상십분경 전긔 로병단 전력시 상십분경 서창이하이십칠명이 전부이려고 나누어 대안에 월경(越境)출동하엿다 한다

### 괘ㅅ심한郵便所員
#### 自殺者의最後선물을 三人이共謀하고橫領

【新義州】지난 이십륙일 평북 백마(白馬)역 부근에서 철도자살한 의주군 위화면(義州郡威化面)오백삼십이번지 리의수의 처 김리근(金利根)(三二)이가 죽기전에 가지고잇든 「돈삼십오원」을 의주군 고관면 상단동(義州郡古館面上端洞) 본가인 김창우(金昌禹)방에 보내는 서류(書留)우편을 白馬郵便所事務員 李鶴應(一七)(假名) 同 李永根(二二) 同 同女事務員 林英姬(二三) 同 등 세명이 공모하고 즉은사람에게서 말나오지 안흐리라는 생각으로 삼십원을 절취하여 나누어먹은 사실이 발각되여 목하 신의주경찰서에서 엄중취조중이라한다

### 慶南自動車部落成式

【金海】경남김해읍, 경남자동차 [illegible] 주식회사에서는 교통사업에 적극적으로활동코저 지난칠월에 동 자동차부를 총공사비 일만사천여원을들여 공사에 착수하엿든바 건축이 완성되엿슴으로 지난삼일에 신축락성식을 성대히거행 하엿다한다

### 四百餘名連署로 米穀市移轉陳情
#### 新興邑北部市民蹶起

【新興】함남신흥읍(新興邑)의시장은 어느것을 물론하고 전부 남편에 위치를 두고서 시민의 다수를 점령한 북부주민으로는 부러는 긔회잇슬때마다 남편시장중 한나를 북촌에 이전하여 달나는 요구를 당국에 제출하여 오든 이제이운동은 북부상무계(北部商務契)를 조직하고 지난이일에 동고천면장(東古川面長)신흥군수(新興郡守)등 당국자에게 대표를보내어 사백여명이서명날인한진정서를제출하는동시에 북촌에 미곡시장을이전하여달라는 제안을 제시하엿다는데 진정서의 내용인즉읍민의 과반수를 점령한북부에 일개시장조차 업스므로 자연 상계가 적막하고 따라서주민의생활도 극히 빈곤하니 시가의 발전과 시민의 공존책을 위하야 미곡시장을 중요한 시장하나를 북촌에 이전하여달라는 의미라고하며 진정인들은긔어이 이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야 목하 비상한 활동을 계속하는중이라는데 진정서를 접수한 당국의 태도여하를 일반은 극히 주목하는중이라고한다

### 价川基靑主催 縣賞說教大會

【价川】지난이십구일 하오칠시부터 개천읍교회당에서 제일회 전개천남녀현상 설교대회를 개최코 [illegible] 천긔독면려청년회 종교부주최로 대성황리에 회장강음은씨 사회로 개회되엿는데 당야출연된 연사는 이십인으로서 교회별로는 딸교회인바 북원(北院) 조양(朝陽) 화동(花洞) 내동(內洞) 평원(平院) 무진대(無盡臺) 개천(价川) 봉창(鳳倉)등교회로서 당야세련된 이십연사들의토한설교는 긴장리에 청중을 감격케하엿는데 영예의 입상자는 다음과갓다하다

一等 朴永昌(平院) 演題 基督靑年의三大要素
二等 金采東(花洞) 演題 이러나자
三等 李東根(北院) 演題 하나님은사자의하나님
三等 李富生(价川) 演題 實踐的奉仕와生活

### 女子中等校聯合音樂

【平壤】동아대판조일평양통신부(大朝平壤通信部)주최의 제칠회 서조선녀자중등학교련합음악회는 오는구일 오후칠시부터 평양공회당에서 개최하리라고한다

# 暴風雨影響으로 鰮魚群漸次南下
## 十月까지의咸南沿岸漁獲高
## 百六十二萬餘桶

【元山】일즉이 전에보지못하던 정어리의 대풍획으로 말미암아 함남도연안은 호경긔를 정한다 함은 루보한바이니와 태마에 어긔에 강풍폭우가 습래하여연안일대에서 어선의파손과 행방불명등 참변을 당하여 인명의 손상기타 피해가 막심하여 비교차되중 어군은 속속 강원도방면으로 이동을 개시하여현재함남도연안은 어획상태가 다소부진중에 잇스나 시월삼십일일날현재 총수양고는 백륙십이만일천칠백구십팔통(桶)에 달하는 미증유의 긔록을 돌파하얏는데 이것을 전년동긔에 비하면 일백십이만이천팔백칠통의 대격증을시하얏다 이제 그수양의내역을 보면 다음과가다

| | |
|---|---|
| 元山 | 四六、〇八〇桶 |
| 三湖 | 一六三、九七六 |
| 前津 | 六三、七二三 |
| 新浦 | 一、〇六四、六六一 |
| 新昌 | 八五、八五七 |
| 端川 | 二〇、六九二 |
| 遮湖 | 一〇二、〇八五 |
| 群仙 | 七三、七二二 |

### 寶鏡寺觀楓會 來十日로延期

【浦項】본보 포항지국주최인 보경사 관풍대회(寶鏡寺觀楓大會)는 삼일 결행할 예정이엿스나 삼일 새벽부터 나리 [illegible]

### 永興의兩大懸案 農校昇格等運動
#### 住民連署로陳情

【永興】함남영흥군에 잇서서십상반군민의 다년간 숙망으로나려오던 을종농교(乙種農校)승격문제와 지방법원 영흥지청(永興支廳)부활문제에대하야 지난 이십오일에 영흥、고원 정평、사개군대표가 함남도지사와 지방법원장을 방문진정한결과 량책임자들의 충분고려함을 보아 전기사개군에서는 또다시 총독부 학무 법무량당국을 방문할양으로 방금그준비에 분망중이라고한다

### 高城、杆城間 鐵道開通祝賀

【杆城】긔보=고성、간성간(高城、杆城間)의 철도개통은 예정대로 지난일일에 되엿다 이날 관계당국자와 입반유지 사백여명이 가성역전에 가설한 축하회장에 참석하엿고 사방으로부터 모혀든 군중은 무려수만여명에 달하야 간성개벽이래 처음보는 혼잡을 일운성황리에오정 [illegible] 가잇슨뒤 성대한 축하연이 잇섯고만세삼창으로 무사산회하엿다한다

### 滿洲의新鐵道 四個線또完成

【奉天】문회와 상업의 발전은 교통완비(交通完備)로 부터라는 슬로간아래에서 만주국에서는 발전공작상 폐단히 분망하고잇는 이때 또다시 오래전부터 만철(滿鐵)에서 청부공사중이든 적 [illegible]

# 群山府內에大火
## 商店五棟六戶의全半燒로
## 損害額의約一萬圓

【群山】지난 사일오전한시삼십분경 군산영정이정목(群山榮町二丁目)백사사번지 포목상(布木商)김중선(金鍾宣)상점에서 발화하야 불은근접가옥인 영신양복점(永信洋服店)과 권중긔 [illegible] 자 소방수(消防手)의 출동으로 동두시간경에 진화를 하엿는데 소실가옥은 전소가옥이 삼동사호이며 반소가옥이 이동이라는데 손해는 약만원이라하며 원인은 실화이라한다

### 安東普校金訓導 十年勤續表彰

【安東】안동현보통학교(安東普通學校)훈도 김성구(金成球)씨는 동교에 취임한지 우금십년동안을 하로가티 아동교육에 [illegible] 때마중 새로운 대규모의 사업 [illegible]

### 第一回少年少女 縣賞雄辯盛況

【奉天】긔보=제일회전만긔독소년소녀(第一回全滿基督少年少女)현상 웅변대회(縣賞雄辯大會)는 예정한대로 지난 이일오후 여섯시부터 봉천서탑교회(奉天西塔敎會)에서 백리언(白理彦)씨의 사회로개회한후 각처에서 모혀온 십사연사의 열렬한 웅변에두니어 엄격한 심사원의 심판한결과는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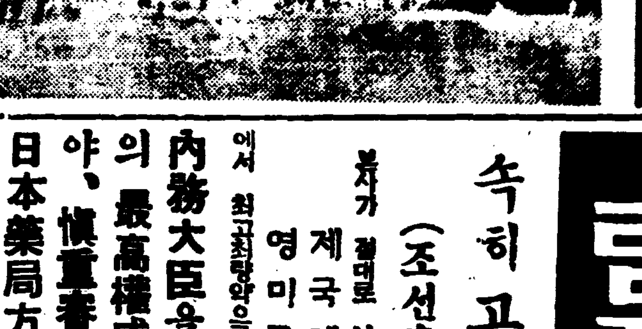
一等 自我를 버리자 撫順基督少年會 許正道君
二等 光陰을 앗기자 奉天西塔敎會主日學校 朴和鵬
三等 在滿少年少女의使命 撫順敎會主日學校 金俶姬
少年아、일어나라! 撫順主日學校 朴昇勳君

# 旱害의間接救濟로
## 災民을鑛夫로採用
## 隣郡에서二千餘名募集

【光州】금번 남조선지방의 한재로인하야 다수한 농민들이 농사를짓지고 필경은 만주로동국외로 류리하게되는 곤경을 당한 전남 광주(光州)읍내 에서 [illegible] 명의 광부를 전긔 이재농민가운데에서 채용하야 그간천구제를 하게된 반가운 소식이잇다 이사금냥은 광주의 청년실업가 최남주(崔南周)씨의 소유한 광산은 하남면(光山郡河南面)소재의 하남사금광(河南砂金鑛)으로 광구면적 이백여마평에 한금량이 평균일분매이상의것인데 동씨가금번 시굴을 거듭하다가 지난 시월이십이일부로 등록까지 완료되어 이달 십오일경부터 본격적 채굴에 착수하게 되엿것이다 그리하야 그에 소요되는 이천명정도의 광부를 린근 한재인 장성(長城)군 당국에 의뢰하야 이재민으로 채용하도록 알선을 요망하는 일방 각지에도 널리 삐라까지 부치어 광부를 모집하고잇든중이다 그리고 채굴은 이후 상년간 계속사업인만큼 당국에서 아직구제책도 서지아니한터에 극히유망시된다고한다

### 新浦支局主催 手藝講習盛況

【新浦】본보지국주최인 수예염색강습회(手藝染色講習會)는 예정과가티 지난 이십칠일부터 당지 구보교사(舊普校舍)내에서 시작하엿는데 이것이 최초의 강습이고 또 강사 김광지(金光芝)씨의 열렬한 리론과신념으로 수강생이 날노늘어 보통에 예정긔한보다 삼일을 연긔하야 십일일이일까지에 회를마치엇는바 참집한 강습생이 삼십여명에 달하여 예긔이상대성황을 이루어섯다한다



◇새로開通된杆城驛全景

# 木材所를占據코 附近에出沒掠奪
## 一隊는同胞村襲擊穀物等强奪
## 長白縣內의土兵禍

【咸興】발두하고잇든 결빙긔를 압두고 함남도대안 장백현(長白縣)내에 장거하고잇든 천여토병단이 각지 이주동포촌을 습격하여 필사적으로 식량강탈을 감행하고잇다는것은 루보한바어니와 삼일 오후아홉시 함남도경찰부에 도달한 혜산서의 전화보고에 의하면 십삼도구 오지 로야부(十三道溝老爺府)부근에 잠재하고잇던 토병 쌍승(雙勝)의 일대 삼십여명은 이일아츰미명 산림 사무방자(四甸房子)에 이동하여 동지에 잠거하고잇든 쌍춘(雙春)등 일백오십여명의 토병대와 합체되어가지고 동지에 잇는 목칠천목재작업소를 습격하여 각작업소 인부 한국소에 분숙하고 잇스면서 부근 일대 강존락에 출몰약탈중인데 만일 토벌대가 접근하여 잇지못하게되면 목재소 한국소할것업시 모조리방화하여 소각하겟다고하는데 이로인하여 갈목재소는 전부페업하고 인부들은 륙속 시가지로 피난중이며 완연히 전시와가치 인심은 극도로 동요되고잇다 그리고 원남팔도구대양목(八道溝大洋?)부근에는 이원오후세시경 련합토병단오십여명이 이래하여 동리이주동포가옥 십여호를습격하여 소(牛)이두 곡류일석 식염등 식료품다수와 솟(釜)까지 전부 강탈하여가지고 삼림지대로 도망가버렷다한다

### 國民府〇〇軍 金龍俊送局

【新義州】벽동군 대평면 율평동(碧潼郡大平面陸平洞)삼백십일번지 김룡준(金龍俊)(二二)은 관전현제오구석주자촌(寬甸縣第五區石柱子村)에 이주중 금년음삼월십팔일 동구하루하촌(下漏河村)에 거주하는 김대춘(金大春)방으로 전거하여 농사에 조력하고잇든바 사월이십사일 오후두시경 흥경현(興京縣)에 근거를두고 안동성(安東省)환인현(桓仁縣)을 활동구역으로삼고 조선〇〇(朝鮮〇〇)을 목적으로한 비밀결사 조선국민부〇〇군(朝鮮國民府革〇〇)제륙중대소대장 리찬식(李贊植)외 두명의 권유를 바다 전긔대춘의 권유를 바더 당일로 그동군제륙중대에 가입하여 이래 만주각지로 도라단이며 활동하든 사건으로 그간 창성(昌城)서에서 엄중 취조중이든바 지난사일 강도(强盜)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등죄명으로 신의주검사국에 송치되엇다한다


**平壤**
# 全平壤籠球聯盟戰
▲時日 十一月七日午後七時부터
▲場所 新陽里崇專體育館
◇主催 崇實專門體育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釜山**
# 全京城釜山蹴球大試合
▲時日 十一月六日午後四時부터
▲場所 釜山公設運動場
◇主催 釜山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釜山支局

**浦項**
# 寶鏡寺觀楓大會
▲時日 十一月十日(日曜日)
▲會費 一人當二圓(往復自動車賃及午料其他)
◇申請期日 十一月八日까지
◇主催 朝鮮日報浦項支局

**扶餘**
# 讀者優待映畫의밤
▲時日 十一月十二日、十三日每夜八時
▲場所 扶餘邑「假設劇場」
◇主催 朝鮮日報社扶餘支局
◇後援 白馬映畫俱樂部



#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 고치는 제일 조흔약
(조선총독부허가제)

본자가 절대로 보증하는、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과대학병원
영미독불의과대학병원
에서 최고최량약으로써 찬양사용하며、또
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고、醫藥學界의 最高權威者十六名을 委員으로하야、愼重審議한後、그品位를定하야 日本藥局方에 收載하고그우에
이잇는 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하야、何等의 副作用이업도록 配劑한許可濟의 治淋劑이다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봉함

따라서 그약효의 절대함은 다년 림상실험의결과 의학계에서 철저적전치약으로 추장을밧게되엿스며「이이상가는 약은업다」고 하는 절대적신념을가지고 정제한것이다 그리고 약효에대하여서도 무효한때는 돈을돌녀보낼것이나 병명을지료불녀하야 보아도 효과가 업는환자는 한도반(半)이약으로전치하십시오

## 藥의有效無效는
### 小便을보면判定된다

림질환자는 여러가지료법에 미혹되야서는 안된다。제일주의할것은오줌이다。보통우리가 림질을 알어낼여면、소변을 컵에다바더 본즉、실낫가튼것이나 몬지가튼것이 떠다가려안져다한다。즉 그것이 림사(淋絲)다。아무리 약을먹고 주사를하지라도、컵에 오줌을 바더보와、실낫가튼 림사(淋絲)가 꼭적어지지안코면 효력업는것이다。그럼으로 소변을 보와서림사(淋絲)가 떠러진약을 먹지안코면 안된다 약이효력잇스면 림사(淋絲)도 적어지고、통증도엽서지며、고름도 잘히여전쾌의 목적을달할수가잇다。

# 梅毒
本社創製의 梅毒藥은 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種과 皇漢梅毒藥數種을 主藥으로하야 副作用이 絕對업는 出願許可濟公認驅梅劑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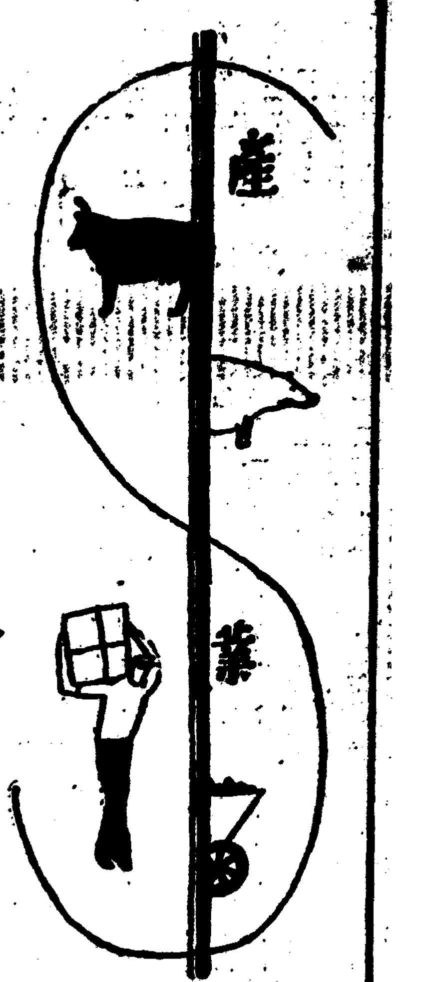
초긔의감창、가래톳의 치료는 물론、제이긔전신매독、잠복매독、유전매독、매독성루마지스등도 보제의내복으로、곳 배독작용(排毒作用)을 하며、매독으로 일어나는 불쾌증과 국부와 전신증상이 절쳐히 빠하여저서 치병의 목적을달할수잇다。무서운 매독을 자손에게 유전치안토록 하로라도 빨리 보자의 구매제(驅梅劑)를 복용하야 고치시라。

약질림 별제(팔일분)팔원 특제(팔일분)사원
약독매 별제(십칠일분)팔원 특제(십칠일분)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2)二三六三番
振替京城二三一五六番
京城鍾路前 有田ドラック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illegible]
제일제약임으로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습니다
작의 有田도락구지매소에서 사십시요

京城府鍾路前 有田도락구




# 朝鮮琺瑯鐵器業 統制에引入運動

## 懇談次日本內地業者近近渡來 事情相異로實現疑問

西部琺瑯鐵器聯合會에서는 近近代表者를 朝鮮에 特派하야 朝鮮의 當業者側과 協議식히기로되엇는바 商工省으로부터 朝鮮總督府에의 通牒에 依하면統制外인 朝鮮品의 海外進出에脅威를 受하는 日本內地琺瑯業者業者는 朝鮮을 統制에 加入식히어 其統制下에 置할것이라는 組合全員의 要望으로 朝鮮對策委員五名을 選任하야 委員 辻永又次郞外四名은 來七日 來京하야 當業者與當局者와 右에關한 懇談을 遂하기로되엇다 日本內地側은 最近에잇서 年產五十萬圓에서 一躍 二百萬圓으로 著增한朝鮮產을 日本內地統制組合에 加入식히고 一定한 配當을 하려는 意向인듯하나 朝鮮의 工場과日本內地의 그것과는 事情이달러 例하면 檢査料와如한것은 日本內地에서는 高級品、朝鮮은 下級品임으로 兩者間에 差가잇서 一律로 하기어려운事情이잇서日本內地와朝鮮과의統制는相當히離隔이잇스리라고보인다

# 過度高價로 豆粕需要減

## 農會共同購入도激減

豆粕의 需要는 近年 해를따라 漸次로 減退傾向에잇서 今年은 無機、有機各肥가 一齊히 躍進時代를 謳歌하고잇스나 豆粕은 如左히 割高로 호응로 그럼에 빠저 農會의 共同購入量과 如함도激減을보이고잇다 卽 現在豆粕은 二圓十錢가량 市勢는 窒素成分當四十錢으로 魚肥의 三圓三十錢 單位三十錢에 比하면 아직 十錢의 割高이오 肥效率에잇서서는 魚肥만못하다 따라 豆粕은 窒素成分單價에잇서 硫安 石灰窒素 魚肥보다 割高이오 魚肥보다 肥效率이 못함으로 消費의減退는 當然하다할것이다

▲東拓貸出增加 東拓京城支店의 貸付는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圓)

| | |
|---|---|
| 定期貸付 | 三、三一三、五九八 |
| 年賦貸付 | 五、四七四、二五一 |
| 合計 | 八、七八七、八五〇 |

으로 前月末에比하야 一萬六千三百五十三圓의增加이다

# 昭和肥料가 朝鮮進出

## 目下調査中

昭和肥料의 朝鮮進出은 森矗昶社長의 二回渡來와 朝鮮電力의 三陟無煙炭鑛委任經營에 依하야 具體化하게되야 三陟郡平南無煙鑛區를 中心으로 事業開始를하기爲하야 諸調査를 行하기로決定 前月末 木浦經由極秘裡에入京한 同社宮野調査 中島經

# 今年의鑛區出願 一萬件突破豫想

## 一月以降十月末累計九千餘件

## □鑛山景氣는進行□

十月中 鑛區出願件數는 六百十八件으로 前年同期 八百九十八件에 比하야 二百八十件의 減少를 示하얏스나 一月以降 累計는 九千百二十七件에 達하야 前年同期累計 七千五百四十四件에 比하면 一千五百八十三件의 激增을 示하얏스며 昨年一年間의 出願件數 九千四百四十七件보다 三百二十件이 不足되는狀態로 아프로 十一、十二兩月이 잇슴으로 鑛山課當局者의 말에 依하면 今年은 一萬二、三百件은 넉넉히 되리라고한다。

# 南洋海運은 空船繼續

## 總督府對策에苦心

纖維、寶球、琺瑯、鐵管工等等 朝鮮產新工業品의 最近東南洋에의 輸出躍進은 刮目할만한데 此朝鮮產輸出出荷에 關하야 때마츰日蘭海運戰爭中은 國策에順應하면、販賣維持가 困難하고 販路를 維持하려하면 國策이 서지안어 딜렘마에 陷入하는外업서 國籍거리로 되어잇다 이는日蘭海運戰爭으로 釜山에는國策에依한 南洋海運과 蘭印의 자바·최이나의 兩社가 滲淮하고잇는바現在朝鮮產品의 購入國는 注文에當하야 자바·최이나 船을 指定하야 음으로 자바·최이나 船을 하지안으면안되다 이로 南洋海運滯港은 空船을 繼續하는事情에잇는바 南洋海運은 國策會社로 當然 支持할 必要가잇다 그러라고 자바·최이나 船指定에 對하야 日本機船을 할수도업서 釜山當業者、商工會議所에서는對策에 窮하고 總督府當局도 이에 對하야 明白한 指示를 할수업서 딜렘마에 陷入하얏다

# 森林의被害

## 百六十一萬餘圓으로 病虫害가八割餘占領

總督府調査의 森林被害는 總被害金額 百六十一萬一千八百十九圓에 達하는데 이被害는 病虫害에 依한 百三十二萬九千五百七十二圓이 八割二分五厘를 占하고 火災의 十一萬、八千五百圓 濫伐七萬一千圓 盜伐七萬一千圓 其他 二萬圓의 順位이다 被害를 道別로보면 忠北의 三十五萬圓이、자장만코 慶南、全南의二十萬圓臺、平北、忠南、京畿의十萬圓臺가 그다음이며 咸北의二萬八千圓이 가장적다 가장被害가큰것은 松毛虫의 被害인데九年度中에 이때문에十三萬圓으로 被害防止에 努力하얏스나 上述한바와 如히 膨大한被害의 發生을보앗다

# 各型一割程度 고무靴價를引上

## 平壤業者窮境打開策

【平壤】平壤고무靴製造業者는 生產過剩으로 販路가 閉塞되여고 또한伊에戰爭에 刺戟되여 原料는올라 苦境에 處하게되여 打開策으로 日前關係者들이 會合하여 討議한結果 作業短縮 工賃金減下等說도 個中에는 잇섯스나 結局은 各型靴에一割假量을 價格引上하는 血路를 發見해슬뿐이라한다

# 肥料統制案에 朝鮮窒素會反對

## 推移如何론全朝鮮大會開催

朝鮮窒素聯合會에서는 三日京城銀行集會所에서 第二回總會를 열고 販賣並配給問題에 對하야 協議하얏는바 今番議會에 政府案으로 提出하기로된肥料統制法案에 對한 全朝鮮肥料業者의態度에 對하야 岡崎窒販常務의內容說明을 中心으로 種種協議한結果今後의 推移如何에 依하야 全朝鮮肥料業者大會를 開催하고 絕對反對의 阻止運動을 起하기로되엇는데 同法案을 反對하게된것은

一、價格을 統制하야 價格의 高下를 政府에서 自由로 行함

二、仕入價込處理 市勢를 그때마다 報告하게되는것

三、投機多量買付等의 一切를 阻止되는것

四、營業의 自由를 完全히 束縛되는것

五、圓滿한 配給은 實際 困難한것

等의 諸理由로 同法案이 法으로 實現되는 境遇에는 現在의 商人의 營業持續에 困難하야 閉店할수박게업다고하는 模樣이다

# 三銀行이 朝鮮援助

## 四日金融懇談會

【東京電話聯合】日銀主催의 金融懇談會는 四日午後 開催한바深井總裁로부터 最近의 金融情勢에 關하야 說明報告가잇고 懇談하얏스며 散會後 繼續하야滿洲國通貨統一에 關하야 大藏省間에 懇談會를 開催하고 大藏省側으로부터 同日의 閣議에서決定된 滿洲國幣制의 統一에關한 內容에對하야 詳細說明이잇고近間 施行할 同國貨幣管理의 大綱 卽

一、投機取引의 禁止

二、外國貨幣의 流通制限

三、地金銀의 兌換準備保有等의

點에 對하야 特히 同國金融界에 關係가 깁흔 朝鮮銀行正金銀行의 協力을 要望하얏슴에 對하야 日銀을비롯하야 三銀行은 獨自의 立場에서 極力援助를할것을의 諒解를與하얏다

▲殖銀債借換發行=殖銀은 壹者百二十三回 殖產債券一千萬圓(利率五分五厘하ㅣ)을 借換키爲하야 百六十三回의 債券(利率四分三厘파ㅣ)를 發行한뒤을잇드며 第九十八回債券五百萬圓(利率六分五厘)이 十一月一日期限滿了가 되엇슴으로 低利로借換하라고 過般以來 債券業者와 折衝中이든바 十一月二日百六十四回殖產債券五百萬圓을 四分三厘파ㅣ로 發行할을 決定하엿다고한다

# 養蜂界沈滯狀態

## 副業으로復興이必要

朝鮮의 養蜂界는 近年에 漸次로 沈滯하여가는 傾向이어서 이것을農家의 副業으로 復興시키지안으면 안되겟다는 議論이 各關係方面으로부터 擡頭되고잇다 이제總督府農林局에서 調査한 昭和九年度統計를보면 養蜂戶數 九萬七千七百十一戶 飼育箱數 在來數 十六萬四千七百六十二箱 改良種三萬六千三百一箱 計二十萬一千六十三箱으로 前年에 比하야飼育戶數에잇서서는 一百七十六戶가 增加되엇스나 箱數에잇서서는 在來種 二千五百七十一箱 改良種 七百三十九箱 計三千三百十箱의 減少를 示하얏다 그러고 採蜜에잇서서도 數量 八十三萬七百四十斤 價額 七十萬七千三百十四圓으로 前年에比하야 數量 十三萬七千二百六十五斤 價額 五萬五千百一圓의各其減少를 보앗다 한다

# 朝鮮產金事業發展策

# 指導協力하는 中央機關이必要

## (下) 朴龍雲

왜 朝鮮사람은 이와가튼 딱한 事情에 逢着하엿는가? 나는 이것을 크게 두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資金의 不足이오 또 하나는 技術의 不足이라고 봅니다 年產 二億萬圓의 性能을 가진 朝鮮의 產金事業이 現在 四千萬圓 生産박게 못되는것은 結局 資金이 업기때문으로 이것을 開發할수가 업는것입니다 現在의 產金은 主로 大資本家의 關係金山뿐이오 多數한 群小鑛業家의 손으로 產出되는것은 적습니다。

金山은 그生成期間에따라서 大規模의 施設을 要하는것도 잇거니와 小規模와 區分的作業으로서 企業하여갈것이 얼마든지 잇습니다 이러한 企業價値를가진事業이 畢竟的으로 發展되여가지못한다는것은 一般金融業者가 斯業에對한 認識이不足한 까닭이라고 봅니다 商業金融 工業金融 農業金融이 모도다 生產企業의 投資對象에다가 그基礎를두엇다고하면 鑛業金融이라고 해서 特히 危險할것은 업다고생각합니다 도리혀 產金事業은無에서 有를낫는 絕對的 生產事業이여서 다른 產業部門에서흔히 보는것과가튼 生產過剩의 餘弊라든가 또는 物價暴落의 反動性과 가튼 念慮가 그리 업는點으로보아서 鑛業金融의 安全性을 認識치아느면 안될줄 압니다 勿論 產金事業이 [illegible] 百이면百이 다成功한다고 할수는업스니 失敗의危險이 잇는것을 否認할수는 업습니다 그것은 엇더한事業을 莫論하고 이러한 [illegible] 危險이 업는일은 [illegible] 업는것입니다 大衆的見地로보아서 產金業은 危險한一部가잇는 反面에 가다가 엄청난 大金脈이 터저나오는 일이 잇슴으로 結局 成果가 큰것이라고 봅니다 그뿐아니라 近來에는 [illegible]과 技術이 相當히 發達되여온 까닭으로 그 調査와 探鑛에 技術을 잘 갓초면 이 企業에 資金을 融通하여도 決코 危險한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鑛業家自體도 企業에 對한 計劃과 技術이 幼稚하엿거니와 金融界가 產金事業에 對한 認識이 매우 薄弱하엿든것이 一大遺憾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國家가 技術的으로 [illegible] 指導를 꾀하는 機關이 업섯든것도 또한 一大缺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엇더케하여야 群小鑛業家에게 金融의길을 열며 技術的으로 [illegible] 거두도록 할수잇는가? 이것이 나의 [illegible] 에 對하야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illegible] 有力한 中央的指導機關이 잇서야 될것을 主張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야 이 機關은 首先 이러한 일을 하여야 되겟습니다

첫재는 朝鮮의 中小鑛業家들을 [illegible] 자는것입니다 그리하야 產金事業의 發展上 互相扶助의 精神을 [illegible] 하야 必要한資金을 [illegible] 되지아느면안될것입니다。

둘재는、產金事業을 [illegible] 金融機關을 만들어야할것입니다 產金事業資源의 하나는 곳資金이니 如何한苦心 如何한方法으로든지 中央에다가 金融機關을 [illegible] 주는 [illegible] 機關이 必要합니다 [illegible] 生각합니다 이러케 [illegible] 할수잇는 程度의 일을 實行하여 產金의 [illegible] 낫하내게되면 그뒤에는 一般金融機關의 動員도 期待되리라고 밋습니다

셋재는、技術的指導와 能率向上을 圖謀하여야 될것입니다。 朝鮮의 產金事業界의 技術이 幼稚함은 무엇보다 遺憾인바 이것도 個人個人으로서 이問題를 解決하기에는 넘우도 無力한 感이 잇지아니 할수업는 中央에 集中된機關이잇서서 全朝鮮的으로 計畫的指導를 하지 아니하면 안되겟습니다 이와同時에 各個金山의 能率向上을 圖하기爲하야 크게 勞力을 要합니다 產業技術의 意見에 依하면 作業狀態의 改善如何로는 現在의 費用으로서도 그三倍의 產金能率을 發揮할수잇으리라고하니 決코 적은問題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要컨대 朝鮮의 產金事業을 本格的으로 發展식히고자 할진대 무엇보다도 먼저 中央에 이것을 指導協力하는 機關이 잇서야되겟고 이것은 必然의 大勢로서 早晚間具體化식히지아느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야 적어도 이 機關의 計畫下에 年產一億萬圓突破의 實績을 드러내는날이 아니고는 朝鮮의 產金事業界는 그性能을十分發揮하엿다고 볼수업습니다。

(上)……同胞의손으로비저노흔河北農場 (下)……四百八町步을거두어오는農場民一同

# 北滿同胞巡訪記 (二)

哈爾賓支局 一記者

# 苦鬪! 四個星霜 今年엔갑잇슬가

## 前途祝福、河北農場民

十八日 아츰 나는 海倫에 李金福君과 함께 한들과 땅이 맛다흔 아득한 벌판을 차저서 河北農場으로 向하얏다 東訪에서 멀리 海北鎭『俗名大天主堂』에 天主敎會의 尖塔이 가로끼인 아측한개를 꺼들고 소사 奧地에까지 그 勢力圈을 뻐친 宣敎師들의 活動을 보여주고잇스며 갓가히 이 땅에 朝鮮農民들이 農場開日에 괴롭고도 支離한 千끗도 모르게 지여노흔 千餘町步의 畓에는 黃金色으로물드린 벼가 고개를 푹숙이채 錦風에 잡풀지고잇다 이땅의 이沃土에 白衣同胞가 허리를 굽히고 秋收에 밧분態을 無心히 내다보는 사이에 車가 宋家에 到着하야 『宋家窩棚』에 나리여 樓會를 마치운것가리 河北農場事務인 玉明善氏를 맛나 우리 一行은 三人이 되여 東南을 向하야 나진언덕 구비를 돌아 約八里가량되는 河北農場에 다달으니 新築하게 뛰여놉힌 學校 充實한畓의 數萬石 農紗 나에겨로 쓸녀든다 이學校는 農民들이 이곳에 移住하든날 부터 一間房을 依支하야 三個星霜을 지나오다가 今年에 農場主인 李善伴氏의 厚意를입어 工數五百圓으로 草家三間이나마 校舍를 짓고 지난 八月秋夕에 落成式을 擧行한것이다 『세멘동크리트』로 뻥그러케 놉히지 못會場의 農校나 주머니가 묵직한 사람들이 지어 놓은것과는 天壤의 差가잇스나 四千里異域에 잇는 移住同胞들의 誠意와 結晶으로되여진 草屋속에서 무럭무럭자라나는 어린일꾼들의 정경을 보니 눈아페 엉든거리든 二重苦가 一時에 씨서저버린다 그러나 農民이 살고잇는 部落은 四方이 두터운 土壁에 싸여잇스며 村落中央部에는 望遠臺가 지여저잇스니 이들은 아직도 銃을떠나서는 살수업는것이다 內部에는 自衛團을 組織하고 數十挺의 小銃을 交附바더 밤을새여가며 自衛하고잇는것은 처음보는나에게는 急迫한 大勢인데서 戰時라도 當한듯한 늣김이 떠올낫스며 이것으로 十倍以上의 士兵을 물니칠수잇다한다

그러면 이農場은 엇더케 經營되여온것인가 그沿革을 들으면 滿洲國建國卽後(昭和七年度)에各地에서 避難民들의 굶주림 아우성소리가 들릴때 同氏는 哈爾賓에서 이들 四十戶를 이곳에 農작하야 오든데 當年 水害를 비롯하야 나리는 天災凶作에는 맛처 손실들이 업섯스나 經理主氏와 統制잇고 規模잇는 指導와 農民들의 團結的協力으로 서로가 失色치안코 苦心努力한 結果 오늘에는 總戶數四十二戶에 男子百四十名과 女子六十名을 合하야 二百名이 貧寒한 살님사리나마 絕望치안코 오히려 希望을 가지게 되엇다고한다 이 農場을 우리同胞農民이 이땅에 발을드려 노흔지 四年에 피와땀을 肥料로하야 생겨난것이니만치 무엇보다도 보고십흔것이 이들의 日常生活의 形便임으로 暫間 돌아서 몃집을訪問하야보앗다 本是 이 農家들은 滿洲人의 집을 買收한것으로 집채道가 매우 廣大한데 집집마다 壁에는 붉은고초와 힌빨내를 너러노앗고 門안을 들어서니 그들의 家具가 華麗하지는못하나마 整頓되여잇고 책상우에와 壁에는 時計를걸어노코 비록殘에꼿을꼬자 房안을 裝飾하얏다 農場事務所에는 테ㅡ불과椅子들이 나란히 노혀잇고 한쪽 壁을 충차지한 常備藥장이잇스며 文書箱에는 農民들의 利害가鑑據하야잇다 나는 이곳에서 空腹을 배불니채우고 農場로 나아갓다 農家를 中心으로 뒷便에는 나즌언덕이 伏在하여잇고農場便에는 興安嶺東에서 구비처 나리는 通肯河가 가로 째여저서·通北縣과 海倫縣의 縣界가 되여잇는데 이 附近의 數萬嶂 農場의 生命線이 되여잇는 關係로 때로는 農場과農場民과農民들이 對立되야 몸싸움이 이러나서 監督官廳에 까지 往往히 出入한적도 한두번이 아니라고한다 農場中央을通한狹路를 나서니 左右에는 벼를 손방비 비고잇는 白衣農軍 點心을 이고 아거를 엉은채는 두렴을 차저오는안악네들 나는 맛치 우리故鄕에나 돌아간듯이 마음이 가벼워저서 그들에게今年度實收豫想을 물으니 서슴지안코 一町步平均二十五石은 確實하다는것이다 그러면 이農場의 開墾總面積六百町步中 今年度作付面積二百町步를 每町步二十五石으로 計算하면 總收五千石이 되는데 이것을現市價 一石十二圓으로 換算하야보면 總額六萬圓이다 그中에서 地租每町步에 二石半과 農場資金償還을合하야 四石式 八百石에 對한 九千六百圓과 今年度農資償付額七千圓을 除하면 結局四萬三千四百圓의 農民들의 收入이되다 이것을 全農戶에分當하야보면 每戶平均一千三十三圓餘으로 이만하면 足하다할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생긔가 떠돌고잇다 年來로 나려오든 舊債를 버서버리고 明年의 糧食도 念慮업슬것이니 明年이 平作만 되다면 一挪에 二十圓박게안되는 農地를사서 自作農을 始作하겟다는 뒷날의 幸福을 꿈꾸고잇다 그들의 오늘의 生活을 繼續하기까지에는 야속한 政治와 無情한 本土民들의 虐待에 하로도 편한잠을 일우지못하고 붓다리를 걸머진채 東奔西走하야 헤매이다가 밝길이 멈친곳이이곳이요四年間이나흙과싸워오며 비저노흔것이 이農場이다 이제로부터는 한間잡이 두間으로 二町步를 耕作하든것이 三町步를 붓치게되기를 빌며 밝길을 의 방아확(臼)두개가 남어잇서 追憶을새롭게한다

(續)

# 勞働市場巡禮 (五) 買鑛所篇

# 鑛主들의喜悲는 勞働者의손씨로

## 누런금덩이도그들엔그림의떡

元山支局···一記者

朝鮮의 地下에 거피기피 埋藏되여잇는 千古의處女寶庫地帶를 向하야 探鑛軍이 突進하는지도 임이오래되얏다 더욱히 金輸出禁止로因한 通貨膨脹政策下에 當局에서 積極的으로 產金을 奬勵하고 金價昂騰의 好條件은 朝鮮에探鑛熱을 膨脹케하얏고 딸아서 無數한 사람들로하야금 朝鮮의 山野를 맛지소리로 요란케하고잇다 이러케 朝鮮의坊坊谷谷과 高山峻嶺 그어데를 가던지 探鑛軍의 足跡이 적히지안흔곳은 업고 반드시 한두개의 鑛山은 잇게 되엿다 더욱히 咸鏡道와 江原道는 그들의 亂舞臺로 化하지안흘수업섯고 이兩道를 가로라고그中心地인 元山港 에 數만흔 金鑛業者의 集中과 誘致를 促하는買鑛所가 設置안될수업게되엿든것이다 이와가튼 四圍의 有利한 條件을 銳利하게 洞察한 藤鑛에선 昭和八年度에 元山府京町에다 買鑛所를 設하얏고 그컴年엔 日鑛에서 元山驛一隅에다가 買鑛所를 設置함에일으럿다 그리하야 數만흔 探鑛者 및鑛業者들의 脾胃를맛최주기위하야 鑛石分析을 無料로하야주어、他日의 買鑛上 因緣을맷고 其因緣의 실마리를 땡이들어오는 年五六萬圓의 鑛石을 買收하는 것이다 이러케 『골드、러쉬』바람에 咸鏡、江原兩道의 膨大한 地下에 埋藏되여잇든 金、銀、銅、鐵、니켈、안티모니ㅡ、鉛、텅그스텐等의 鑛物은 數만흔 鑛夫들 의 억센주먹과 鋼鐵해서 또는 다이나마이트의 無慈悲한 爆發力에 依하야 地上에 露出되여 牛車와 汽車、汽船等을 通하야 元山買鑛所로 運搬되는것이다 元山에서 이鑛石을 사들이는곳은 이상하게도 서로 對峙하야 厥然中 激烈한 買鑛競爭을 하고 잇스니 日鑛派은 元山埠頭에 陣치고 藤鑛派은 元山驛 에 本營을 하고 汽車便을 中心으로 對抗하고잇는것이다 이러케 이두買鑛所는 바다와 陸地에서 買鑛爭奪의 戰爭을하며 地下의 資源을 헤처서 數만흔 寶物을 빨아서 一攫千金을 꿈꾸는 손님과크레딧ㅡ트를맷고저 애를쓰고잇는터이다 이 두 買鑛所의 勝負는 戰術戰略의 優劣과 그運用如何에 依하야 決定되는것이어니와 그살림物의 良否를 檢定하는 助役格인 勞働者들의 狀態는 엇더한가

記者가 두買鑛所를 차저가기는 지난十月下旬의어느날 午後엿다 먼저 日鑛을 차저갓슬때는 눈에떠우는것은 여긔저긔에 積疊가티 싸허노흔 各條各色의 鑛石 鑛主와 大豆叺가리쌋흔 鑛石叺이보이고 五六個所에서 十名式모혀일하는 勞働者들이 삽헌겁帽子에 白赤靑의줄을 한줄 두줄식 띄고잇는것이 보인다 그들의 일하는곳에가보니 드人夫가 鑛石을 들어다가 台秤우에 노으면 買鑛所事務員 인듯한사람이 鑛叺을 뜨고 이것이끗나고 두사람이 땅에다가 쏘다노으면 두 帽子쓴人夫가 삽으로 한삽식 "쌤플"을 떠서 稱子에넛는다 그러면 다른人夫는 그叺을 整理하고 또다른人夫는 그鑛石의 同一級을 한곳에 모아나는다 이러케 한곳에서 約十名式 여섯곳에서 일하고잇스니 이곳에서일하는 勞働者는 約六十餘名이다 그中에 指定人夫가 約三十名박게안되니 殘餘는 모다 自由 勞働者 들이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勞働課程이란 每日『쌤풀』뜨고 同一級 鑛石의 集合과 叺의 整理等이다 이러케이 買鑛所勞働者의 손을거처서 分析所에간 鑛石에 들어잇는 純鑛物含有量의 多少는 보이지안는鑛石속에 數千圓乃至數萬圓의 돈이잇게도하고 그反對로 一分의 價値도업는 돌멩이로도 만들어 鑛主들의 喜悲를 左右한다고한다 이러케 每日 黃金덩이를 만지는그들의 勞働이란 僅僅數時間것은 아니로되 그들이 『쌤플』을 잘뜨고 못뜬은 鑛主의 喜悲를左右하고 數千金이 생기게도하거만 그들은 每日千時間勞働에 賃金으로 最高六十五錢과 普通五十五錢을 바더가지고 父母妻子를 扶養하는것이니

世事의 皮肉的作亂이 안이든가 더욱히 그들은 直接買鑛所에서 삭전을밧는것이아니고 近藤이란 請負人의 손을거처서 밧게되니 請負人에게서 中間搾取를當하고 잇는것이다

이러한 日鑛을 뒤로두고 발을 옮겨 元山驛附近에잇는 藤田買鑛所를 차저가니 이곳에서도 五六十名이 日鑛과가튼 勞働을 하고잇다 日鑛과 다른것이란

지게진 사람이 잇는것이라할가 이곳에서도 指定 人夫로 三十一名을 쓰고 남어지 勞働者는 亦是 自由勞働者인데 指定人夫의 勞銀은 一圓六十六錢이고 普通勞働者는 七十三錢이다 섬섬히생각하면 指定人夫의 勞銀이 [illegible] 者보다 [illegible] 써준다는 고마운 [illegible] 自由勞働者는 [illegible] 使用하야 다른 [illegible] 勞賃과 低廉하게주고는 살수가 업기때문에 [illegible] 그러고 日鑛과 藤田의 勞働은 가튼時間에 가튼일이건만 日鑛은 藤鑛보다 十七八錢이 低廉하니이것은 아마도 請負制로 부러오는 中間搾取의 所致인듯 하다 以上 두곳 買鑛所의 勞働은 實 日前에

引上한 것이지 그前엔 그보다도 싸다고하는데 이러케勞賃을 引上한것도 그들 買鑛所側에서 勞働者의 窮乏한 生活을 同情해서 올린것이 아니고 物價高에 勞賃低의 不均衡을그들이 말하며 늘 不平을 갓고잇는 눈치를 알기때문과 이지음은 鰯魚等 漁物의 豊獵으로 만흔 勞働者가 漁港부附와 鰯油肥製造場으로 몰림으로 勞働力供給의

不足으로 不得已 引上한것일것이다 이 두買鑛所를 돌아보고나니 千岐萬端의 雜念이 떠올나 머리를 混亂케하고 무겁게하얏다 (買鑛所篇了)

# 火賊 林巨正 (216)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五의 二六

백손어머니만 교군바탕을 태우고 꺽정이 까지도 보행으로 가기로하얏다 광복산서온 졸개 하나외에 짐군들이 더 들어서 한첨지집 사람이 교군꾼들 아울러 넷이 가는까닭에 일행이 모다 열사람이되엇다 식후에 꺽정이는 리봉학이더러 일행을 다리고 먼저 떠나서 가는대로 가다가 청석참에 기다리라고하고 남성이 옵과 동소문안으로 작별하는사람가리 말을 막잘하얏다 다시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에 박씨는 눈물이 비오듯하고 원씨는 괴함하야 쓸여지고 김씨는 못간다고 옷자락을 붓잡고 날치엇다 세집에서 세차레를 각각 조이 지체하고 해가 거의 한나절이 되엇슬때 꺽정이가 작별나오는 한온이와 가치 동대문밧그로 나오는데 김씨집에서 나올때 보지못한 로밤이가 미리 압질러 성밧게나와서 기다리고잇다가 아프로나서며

『저는 보두안쿠 가십니까』

하고 애원하듯 말하얏다

『너를 보려구 찻다가 업서서 네기집에게 말을 일러두구왓다』

『무슨말을 일러두섯습니까』

『무슨말이야 못보구 간단말이지』

『못보면 못간다구는 말슴 못하시구요』

『넷기눔 시룽거리지 말구 들어가거라』

『말슴할께나 다하구 들어가든지 마든지 하겟습니다』

『할말이 무슨말이냐』

『선다님이 저는 비부쟁이루 놀거죽으라구 내버리구 가시는셈입니까 엇더케하시는셈입니까 제가 도덕여울서 팔포재상부럽지안케 지내는걸 서울까지 끌구와서 하인으루 부리구 비부쟁이루 부리다가지금와서 나、몰은다 하구 내버리구 가신단말입니까』

『도덕여울이 맘에 못니처거든 돌우 가지 누가 말라느냐』

『선다님하구 일평생을 가치지내기루햇지 언제중간에 갈리기루햇습니까 하룻밤새 번덕이나서서 정닥게 가치살든녀편네들을 노끈고쫏 몽창끈으시는 선다님두 저는 끈치못하십니다』

『나를 떨어가구십거든 지금이라두 가치가자』

『진작 그런말슴을 해주셧스면 저혼자 생각두 하구 기집년하구 의론두 햇지요 선다님 문안으루 돌우 들어가서 오늘하루만 더기십시요』

『미친놈가트니』

『선다님가리 인정업는냥반 저는 처음 보왓습니다』

『나는 간다』

꺽정이가 걸음을 떼어노흐랴고하니

『제발한마디만 더들어줍시요』

로밤이가 압흘막아 들어섯다

『이국이 날 붓잡구 실랑일하는셈 아니가』

『제가 오늘 선다님을 마주막 뵙입구 다시 안뵙입니까』

『그럴리가잇겟니』

『그럼 어서 치리 비켜라』

『말할마디만 더여주어보구 물러가겟습니다』

『무슨말이냐』

『서울 안으서들을 나중에 데려가시지안흐렴니까』

『그건 왜 뭇느냐』

『안데려가시구 영 내버리신다면 저두 기집을 내버리구나오든지 달구 나오든지 냥단간 작정하구 선다님 뒤를쫏처갈랍니다』

『나중봐가며 데려갈는지두 몰으지만 지금은 내버리구 간다』

『시량이나 옹은 전대루 대어주십니까』

『나루、바라구들잇는 동안까지 대어줄테다』

『그럼 제가 아직 서울 처저잇서서 세집으루 돌아다니며 바가질을 보살펴줄가요』

『그거 네 생각대로 하려무나』

『안으서님들을 잘 보호하는것두 선다님을 위해서 하는일이니까 저혼자 뒤에 떨어저두 섭섭하지 안습니다』

『인제 더할말업느냐』

『네』

『잘잇거라』

『다라원 까지나 뫼시구 갈지요』

『고만두구 들어가거라』

로밤이가 하직하고 한온이와 가치 들어간뒤 꺽정이는 먼저 간일행이 오래 기다렷슬것을생각하고 걸음을 밧비 떼어노핫다